

# 여론조사꽃 제13차 정례여론조사 ARS+CATI 보고서

[www.flowerresearch.com](http://www.flowerresearch.com)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 여론조사 꽃

## 정례여론조사 **ARS+CATI**

### 보고서

#### 조사내용

성별, 연령, 지역  
국정지표, 국정현안

#### **ARS+CATI** 국정지표

정당지지도  
국정운영 평가

#### 국정현안

변화에 대한 기대  
검찰의 대장동 수사 신뢰도  
전방위적 대장동 특검 제안  
검찰의 야권 표적 수사 주장  
김건희 특검  
더불어민주당 당사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시정연설 보이콧

#### **CATI** 국정현안

촛불 집회의 시점과 참여 의향  
부동산 가격 전망  
국내 경제 전망  
경제 악화에 대한 윤 정부 책임 정도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여론조사 꽃, 11월의 첫 번째 리포트는

정당지지도와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그리고 국정현안에 대한  
ARS와 CATI전화면접조사 결과 보고 입니다.

정당지지도,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와 현재 정치와 경제분야의  
여러 현안들에 대해 무선가상번호를 이용해 질문하였습니다.

검찰의 대장동 수사와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전방위적 대장동 특검,  
김건희 특검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압수수색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 여론조사 꽃

## 정례여론조사

### ARS+CATI

# 보고서

- ARS+CATI
- 국정지표
- 정당지지도
- 국정 운영 평가
- 국정현안
- 변화에 대한 기대
- 검찰의 대장동 수사 신뢰도
- 전방위적 대장동 특검 제안
- 검찰의 야권 표적 수사 주장
- 김건희 특검
- 민주 당사 압수수색
- 민주당의 국회 시정연설 보이콧

### 조사개요

	ARS	CATI
조사방법	통신3사 제공 [전체 30,000개   SKT: 15,000, KT: 9,000, LGU+: 6,000] 무선가상번호 활용 ARS조사	통신3사 제공 [전체 25,000개   SKT: 12,500, KT: 7,500, LGU+: 5,000] 무선가상번호 활용 CATI 전화면접조사
모집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표본크기	1,002명	1,012명
표집방법	2022년 09월 30일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	6.0% [총 통화시도 16,716명]	12.3% [총 통화시도 8,233명]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09월 30일 기준, 성별·연령대별·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조사기간	2022년 10월 28일 ~ 10월 29일(2일간)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본 조사 결과의 저작권은 (주)여론조사꽃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배포, 수정은 불가하며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주)여론조사꽃의 자료를 인용할 경우 출처에 대한 명기와 함께 선거여론조사기준 108조 규정에 따라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를 반드시 준수하여 인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자 특성			ARS					CATI				
			조사원료		가중값 적용 기준		가중값 배율	원시데이터		가중치 부여		가중값 배율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전체		1,002	100.0%	1,002	100.0%	1.00	1,012	100.0%	1,012	100.0%	1.00
성별	남성	523	52.2	497	49.6	0.95	537	53.1	501	49.5	0.93	
	여성	479	47.8	505	50.4	1.05	475	46.9	511	50.5	1.08	
연령	18-29세	127	12.7	170	17.0	1.34	147	14.5	172	17.0	1.17	
	30대	144	14.4	151	15.1	1.05	160	15.8	151	14.9	0.94	
	40대	209	20.9	185	18.5	0.89	195	19.3	186	18.4	0.95	
	50대	226	22.6	196	19.6	0.87	206	20.4	196	19.4	0.95	
	60대	171	17.1	165	16.5	0.96	181	17.9	168	16.6	0.93	
	70세 이상	125	12.5	135	13.5	1.08	123	12.2	139	13.7	1.13	
지역	서울	211	21.1	188	18.8	0.89	209	20.7	191	18.9	0.91	
	인천·경기	307	30.6	318	31.7	1.04	336	33.2	321	31.7	0.96	
	대전·세종·충청	110	11.0	107	10.7	0.97	103	10.2	107	10.6	1.04	
	광주·전라	89	8.9	96	9.6	1.08	92	9.1	98	9.7	1.07	
	대구·경북	97	9.7	98	9.8	1.01	93	9.2	99	9.8	1.06	
	부산·울산·경남	141	14.1	151	15.1	1.07	145	14.3	152	15.0	1.05	
	강원·제주	47	4.7	44	4.4	0.94	34	3.4	44	4.3	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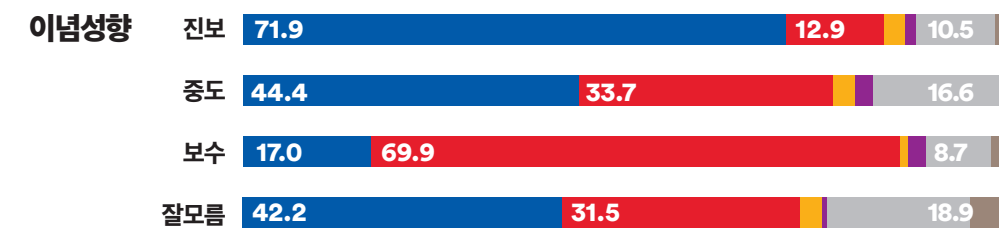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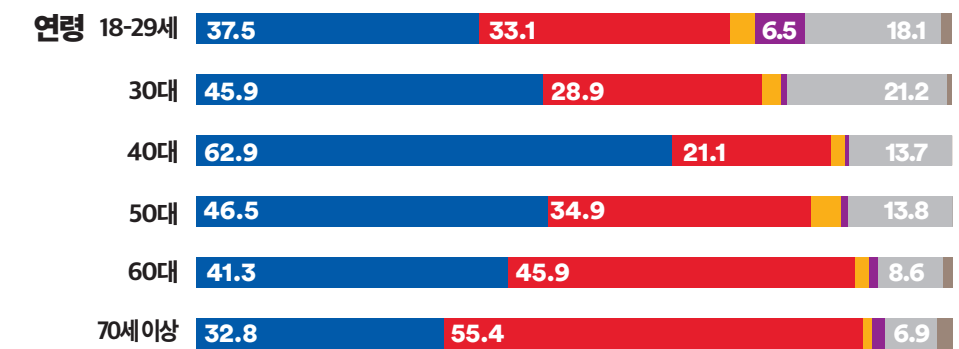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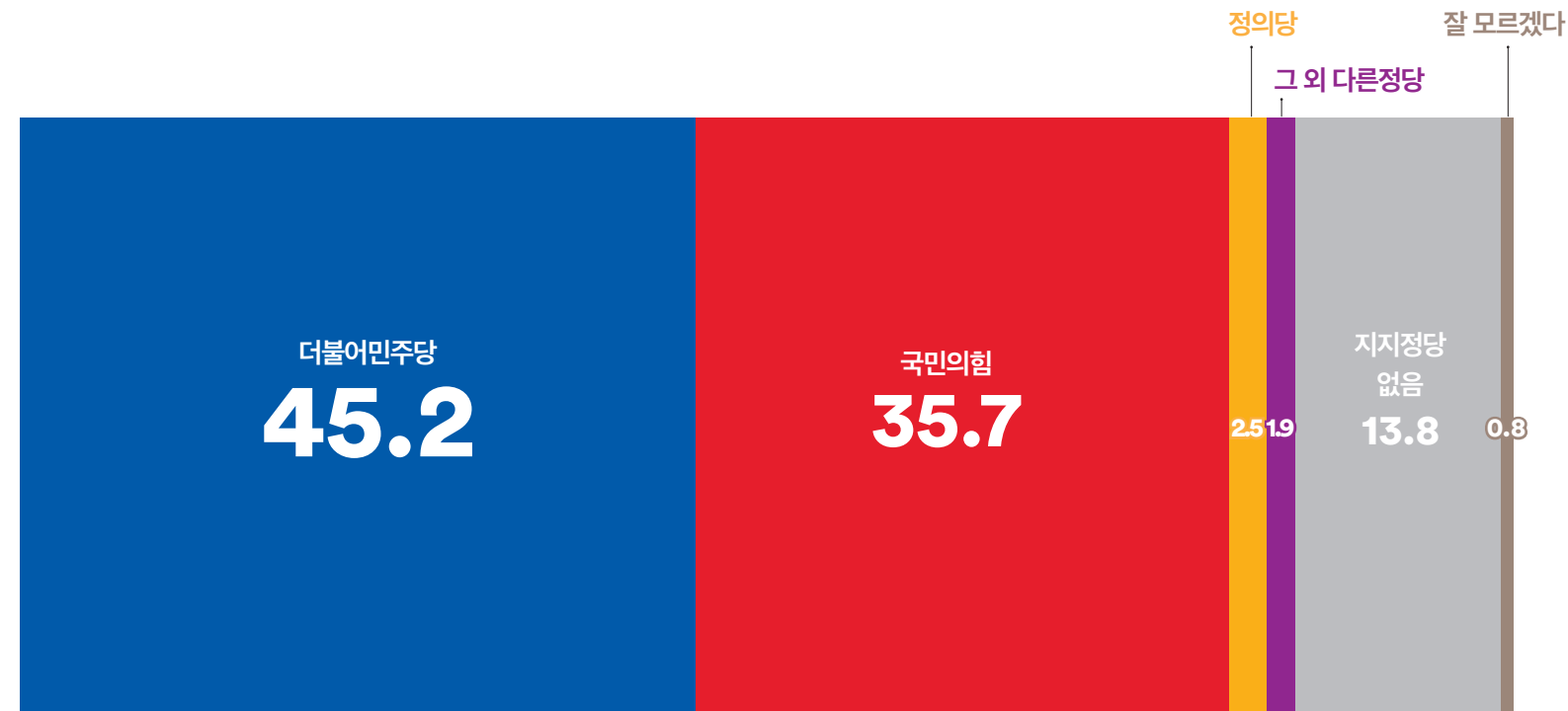
본 조사결과는 표본조사이므로 결괏값 해석 시 표본오차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통계보정을 위해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반으로 성·연령대·지역(권역)별 사후가중을 실시하였습니다.  
사례수가 30명 미만일 경우, 이상치(outlier: 변수의 분포에서 비정상적으로 분포를 벗어난 값)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으므로 결과 해석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괏값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 자리까지 표기하였으며 결과에 대한 단수 합산 시 반올림 오차(round-off error)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부 항목의 단순 합은 100.0%가 아닌 99.9% 또는 100.1%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표감도 측정 결과를 기반으로 산출한 지수(Index)는 비율과 구분하기 위해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합니다.

## 국정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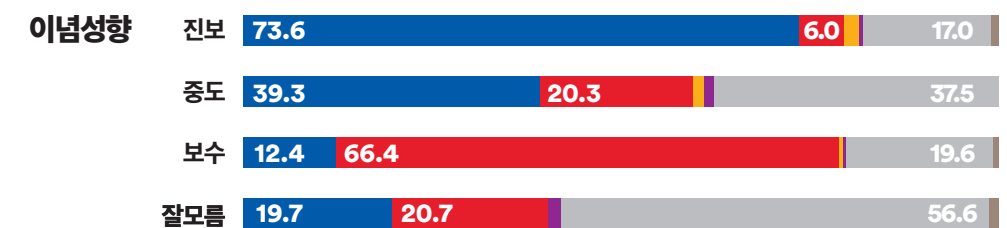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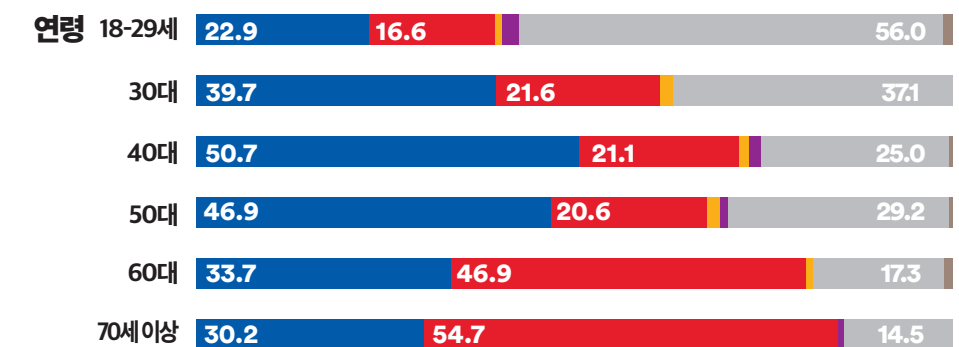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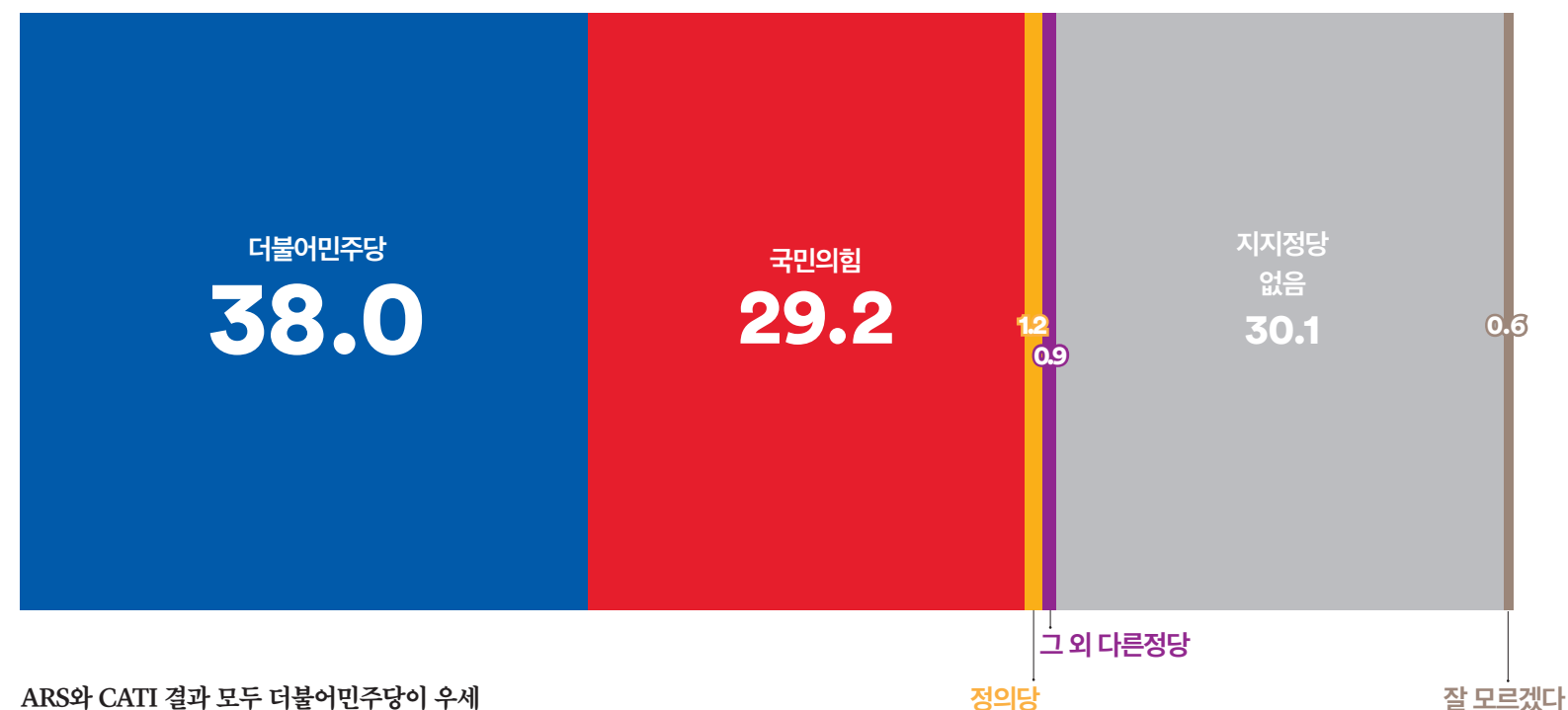
## 정당지지도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ARS



CATI



ARS와 CATI 결과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우세

ARS에서는 30대·40대, CATI에서는 30대~50대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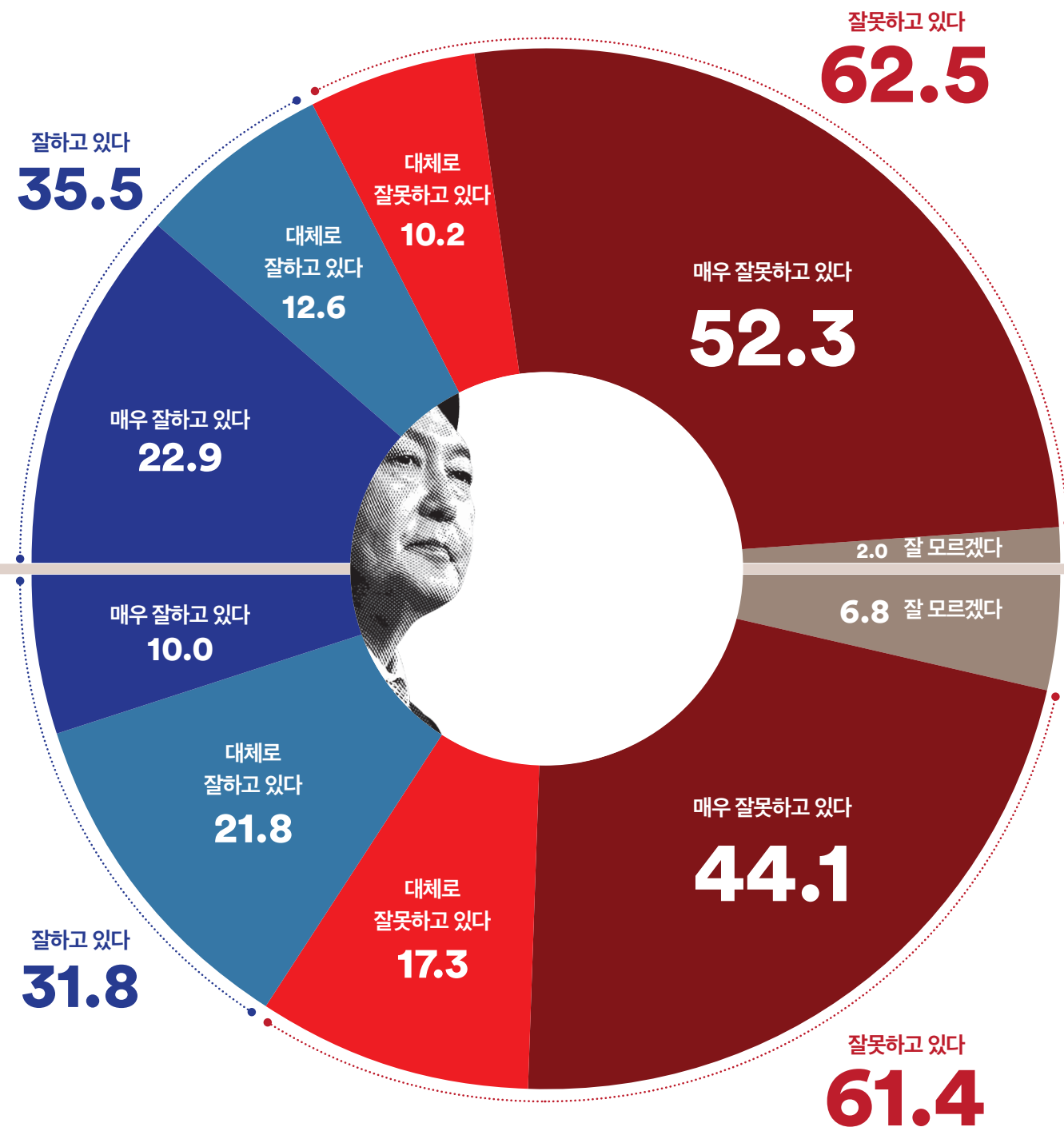
7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ARS와 CATI 모두 국민의힘이 우세

국정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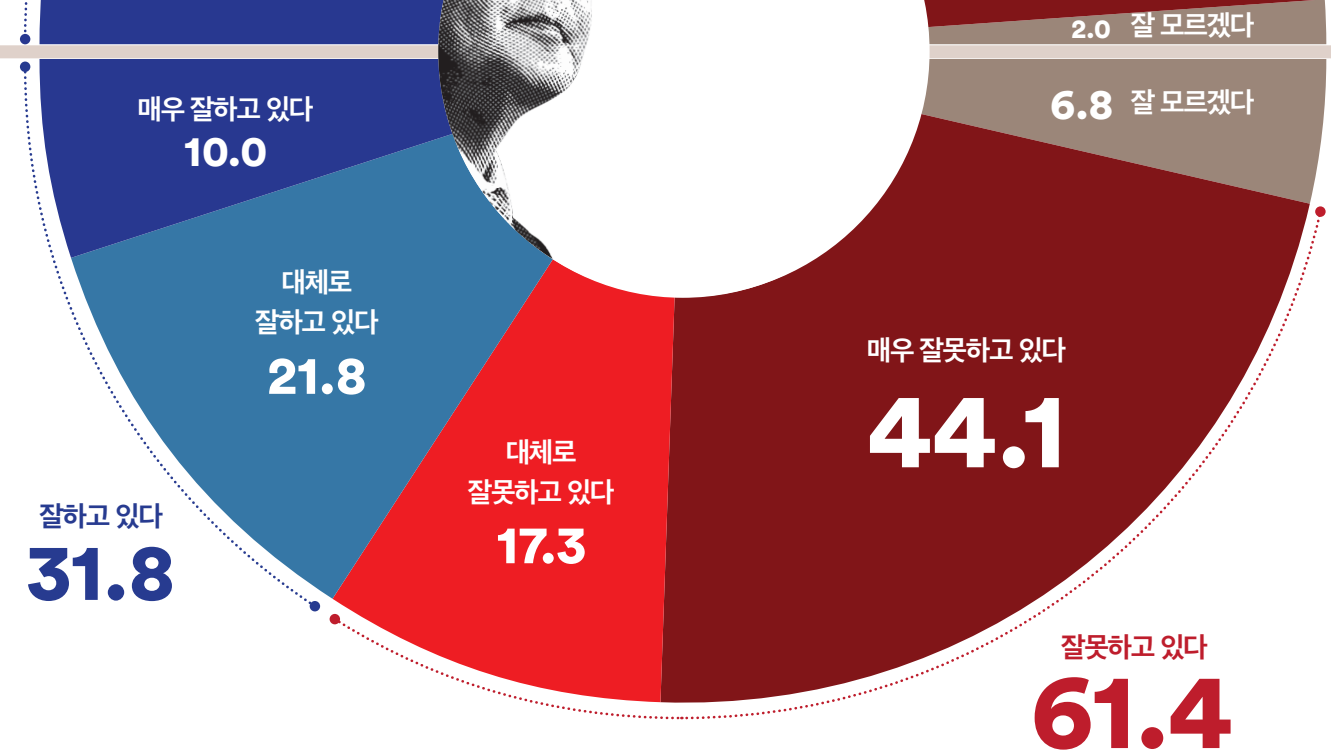
국정운영 평가

Q. 윤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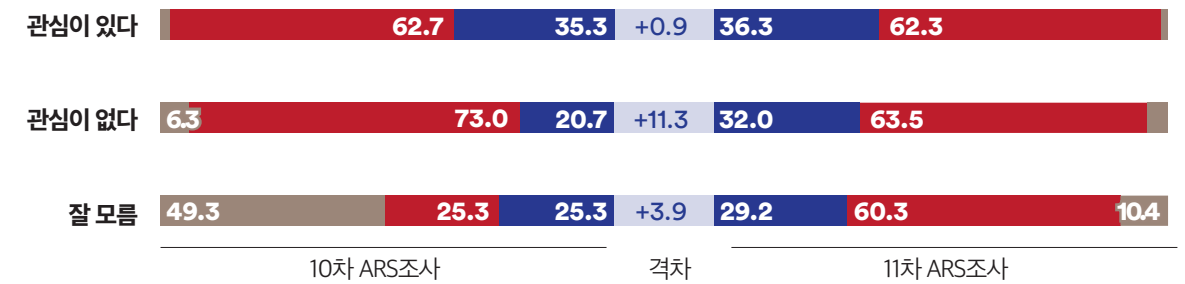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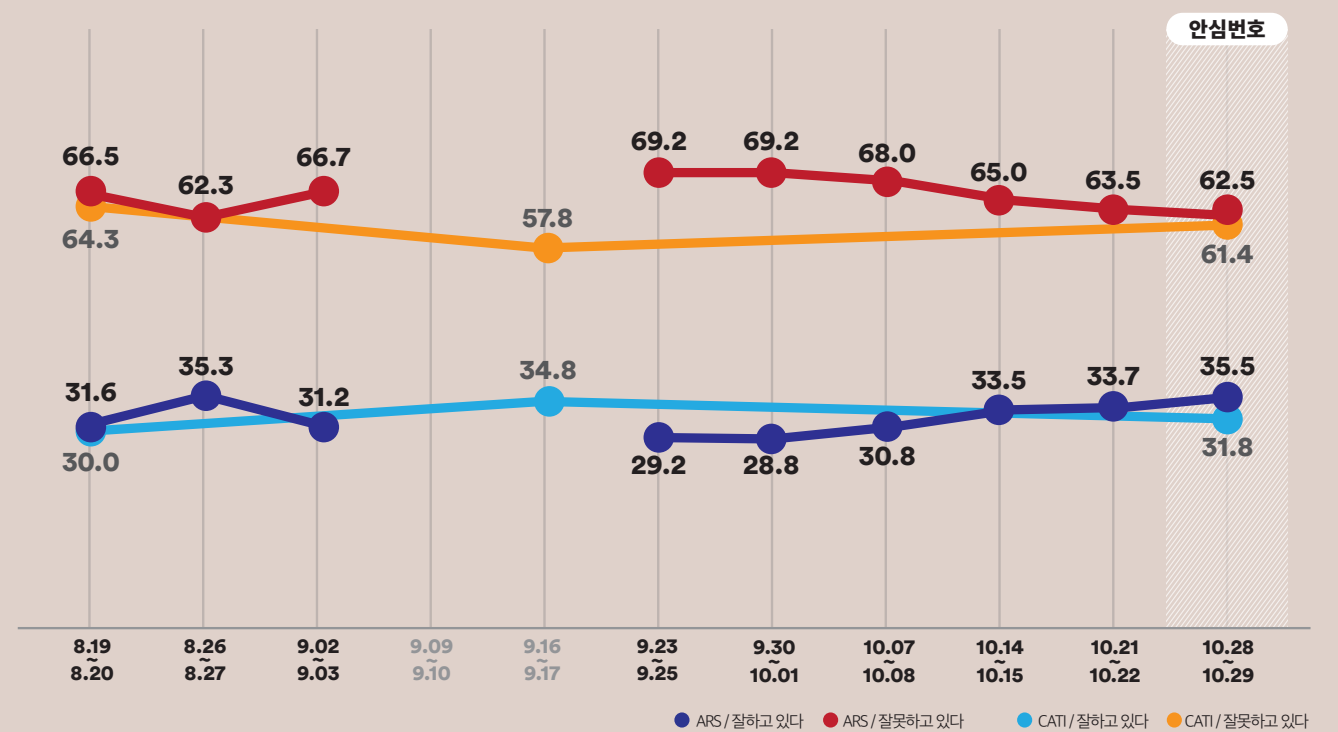


ARS와 CATI 모두 10명 중 6명 이상이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  
ARS와 CATI 모두 진보층·중도층에서는 부정평가 우세, 보수층에서는 긍정평가 우세  
ARS 조사의 경우, 지난 주 대비 긍정평가 1.8%p 증가, 부정평가 1.0%p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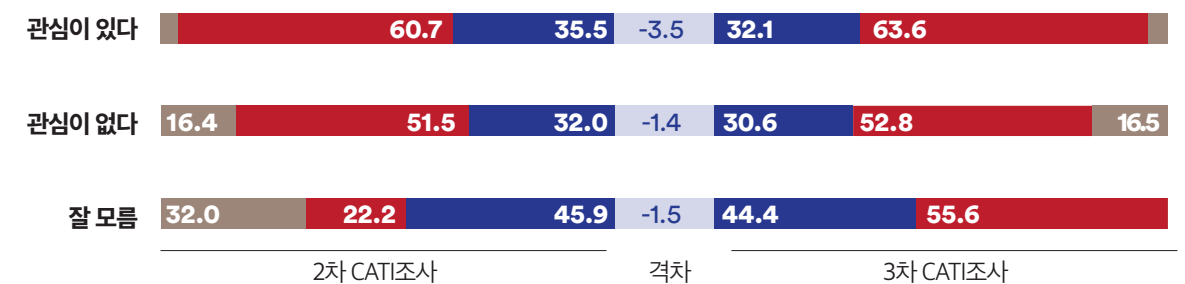
정치 관심도



주차별 국정운영평가



정치 관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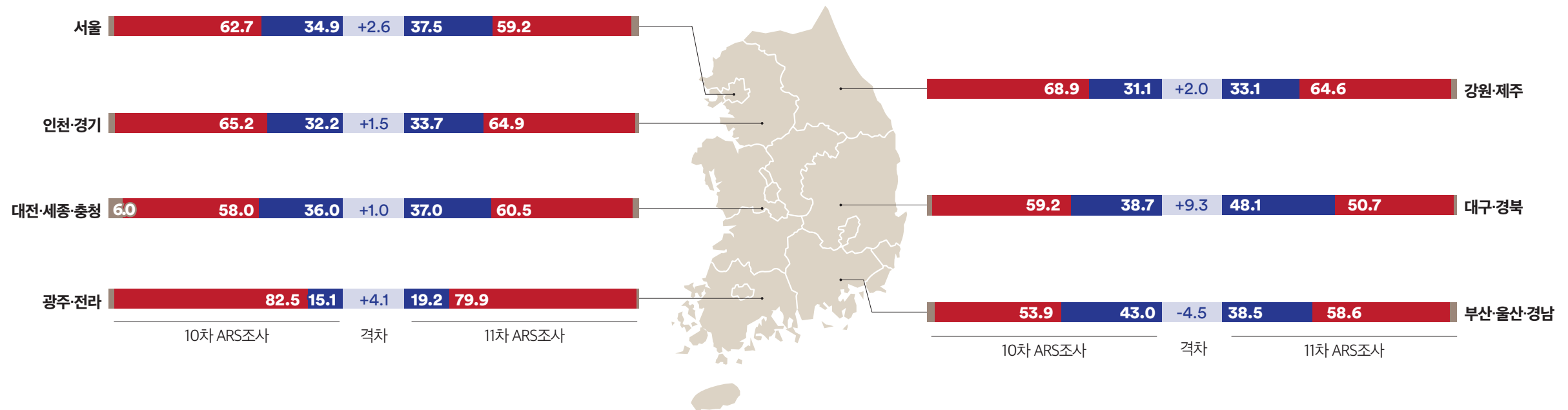
국정지표

국정운영 평가

Q. 윤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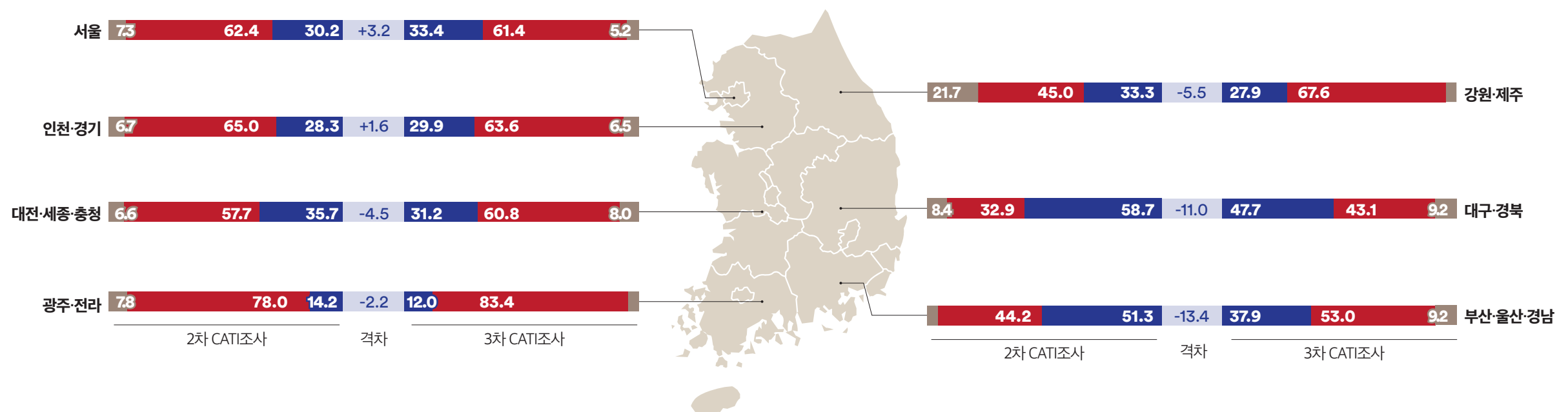
ARS

권역별



CATI

권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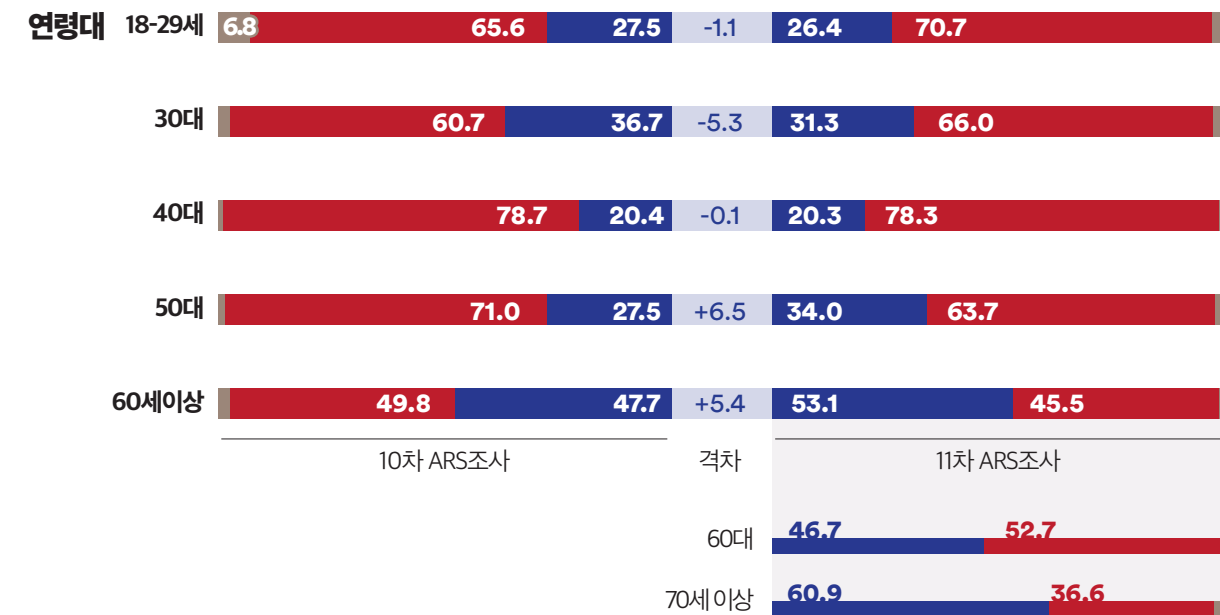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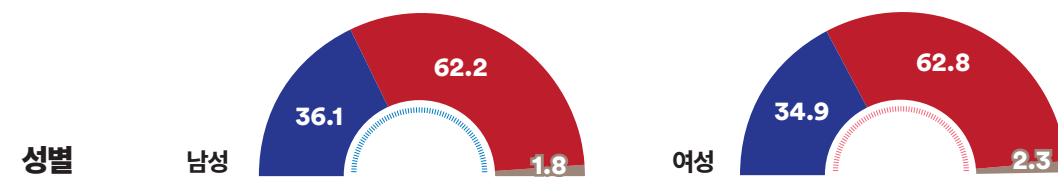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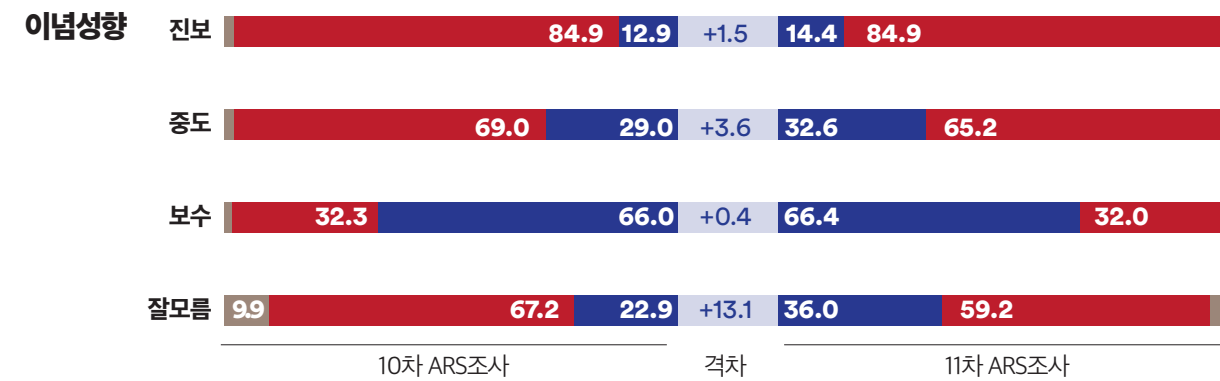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국정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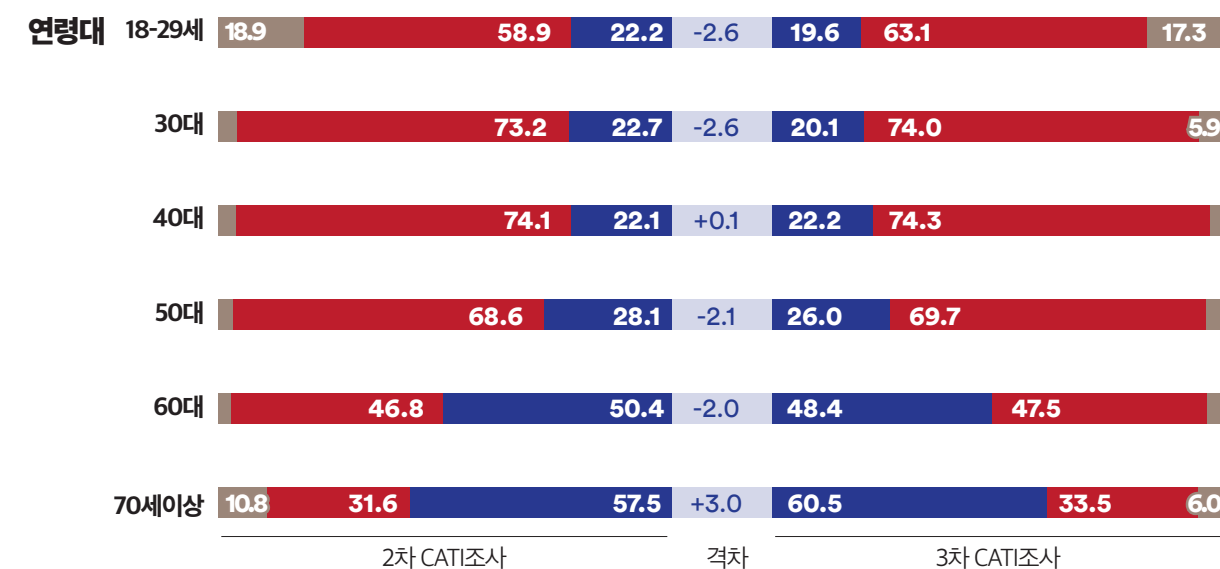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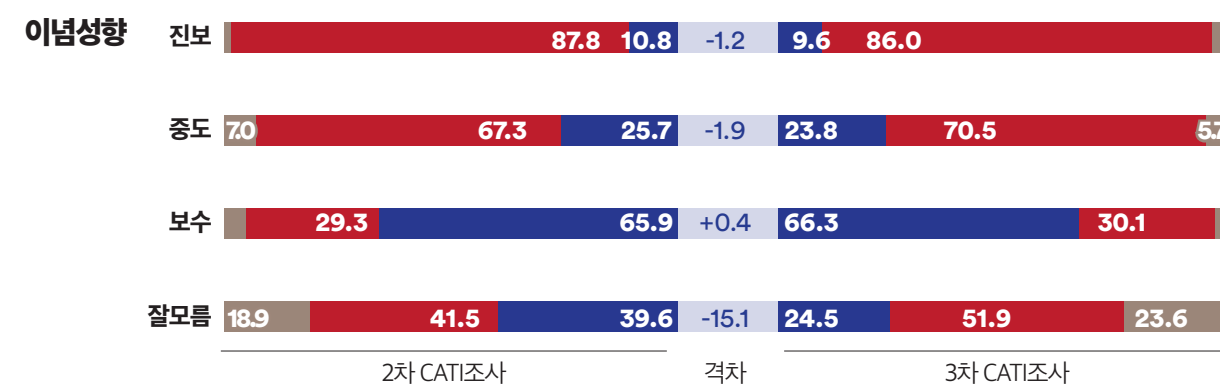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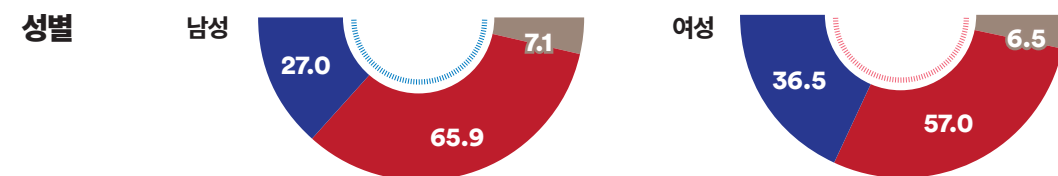
국정운영 평가

Q. 윤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RS



CATI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국정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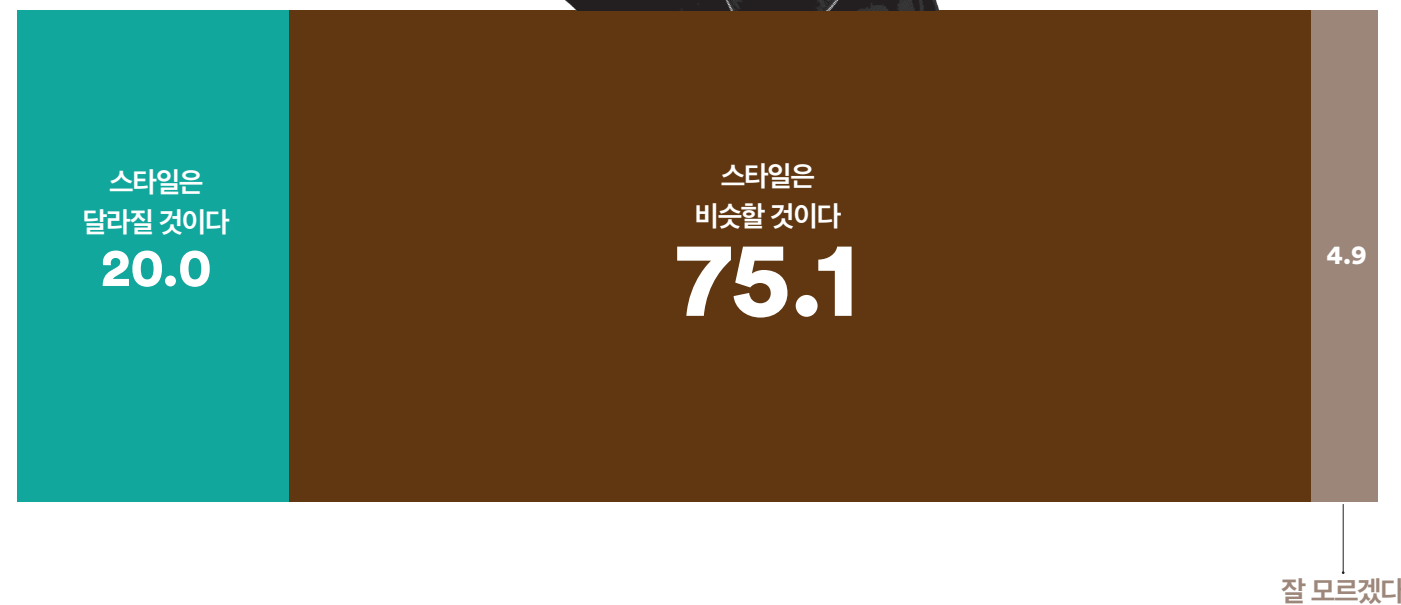
변화에 대한 기대

Q. 윤 대통령의 향후 국정 운영의 기조나 스타일이 달라질것이라 보십니까?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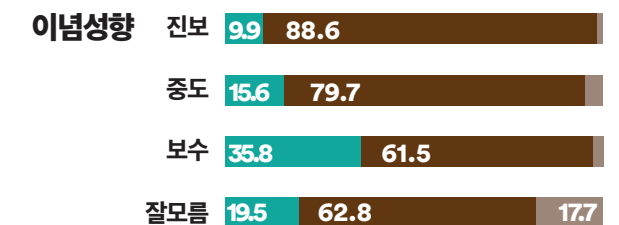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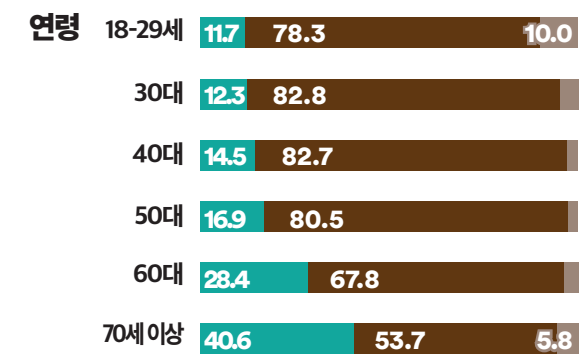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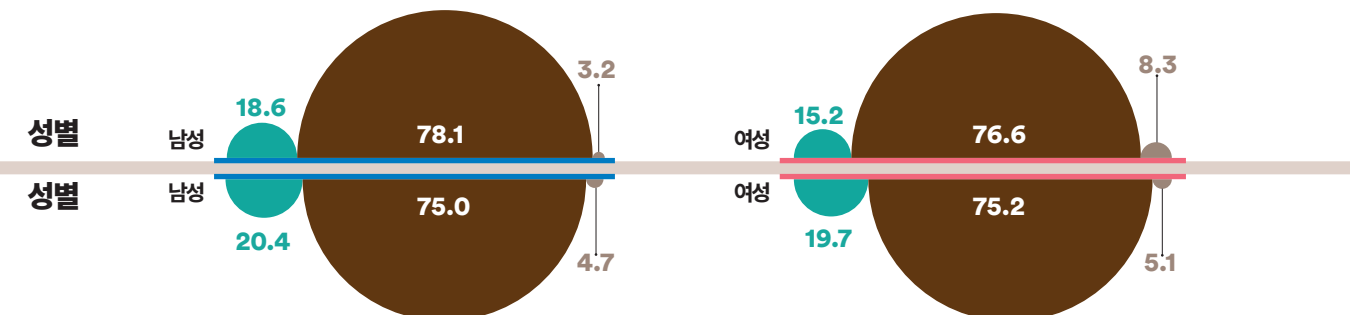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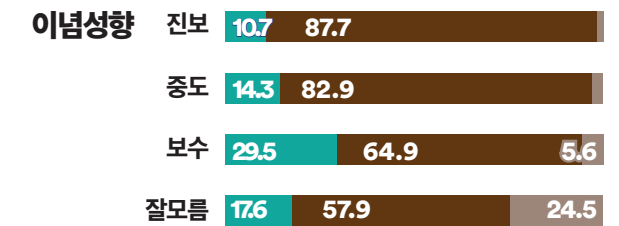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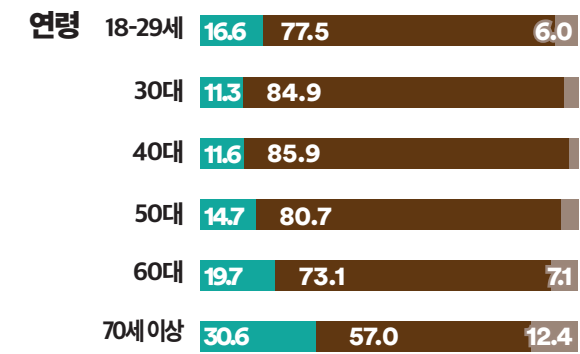


CATI



ARS와 CATI 결과 모두 10명 중 7명 이상은 '스타일이 비슷할 것'이라 응답

8차 ARS조사(달라질것 18%/ 비슷할 것 77.7%) 대비 '달라질 것(-1.1%p)', '비슷할 것(-0.4%p)'으로 거의 변화 없음



달라질 것이다    비슷할 것이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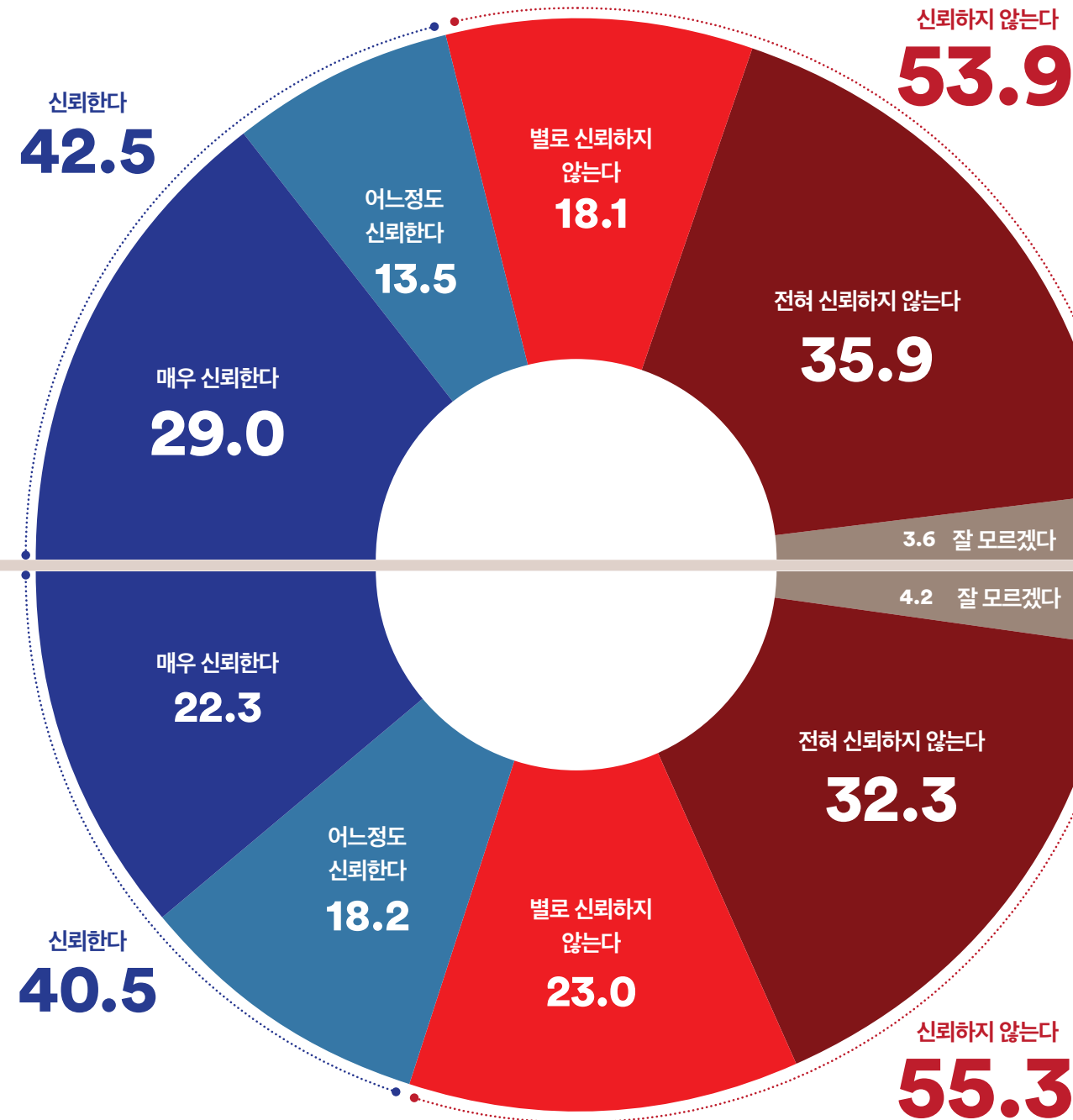


국정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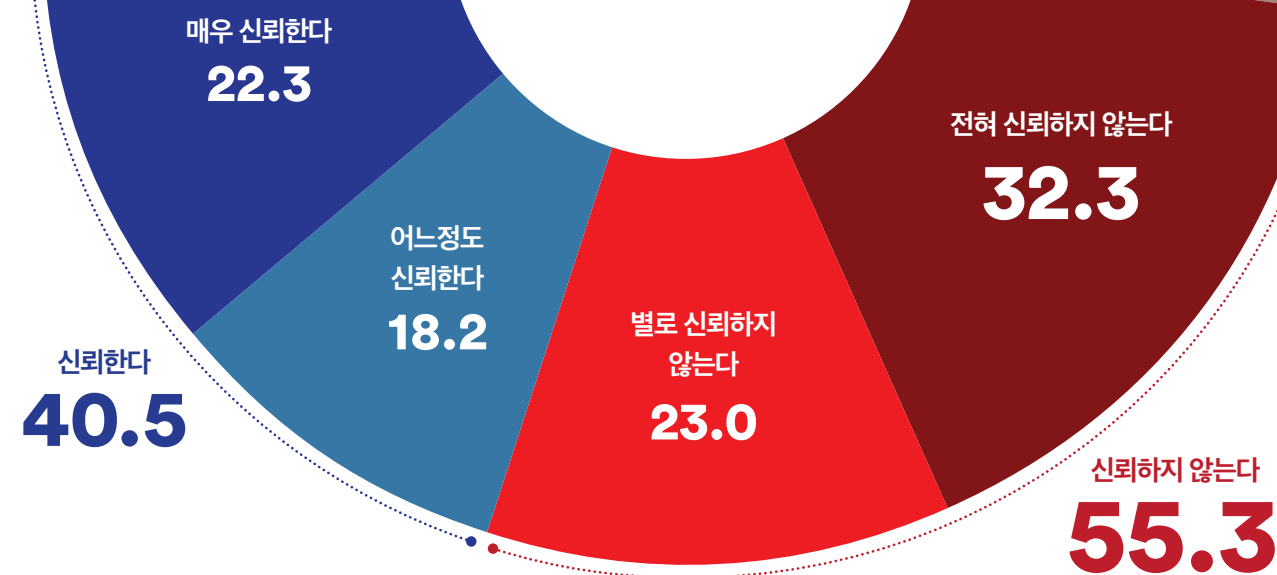
검찰의 대장동 수사 신뢰도

Q. 검찰은 대장동과 관련해 수억 원대의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신뢰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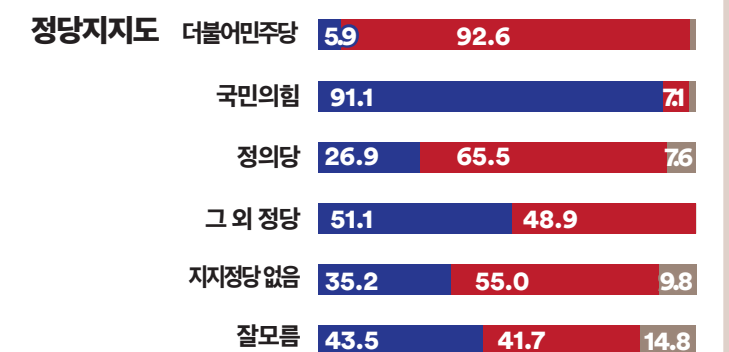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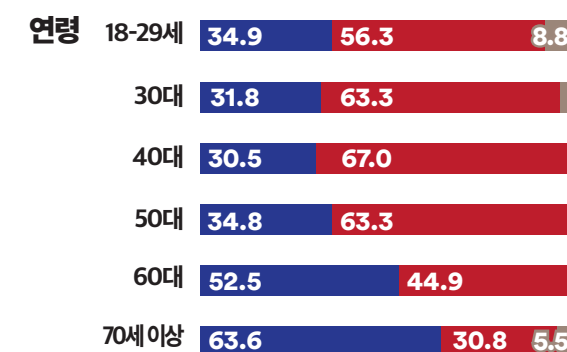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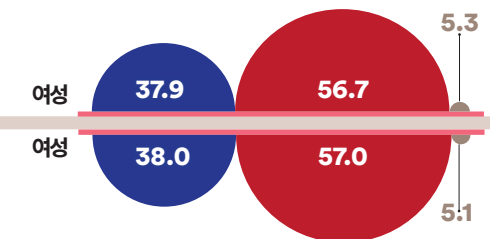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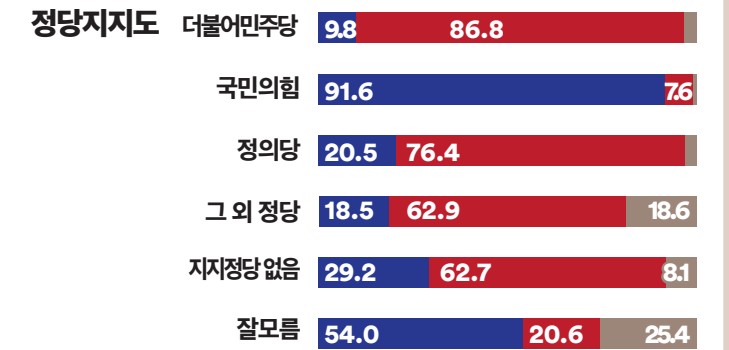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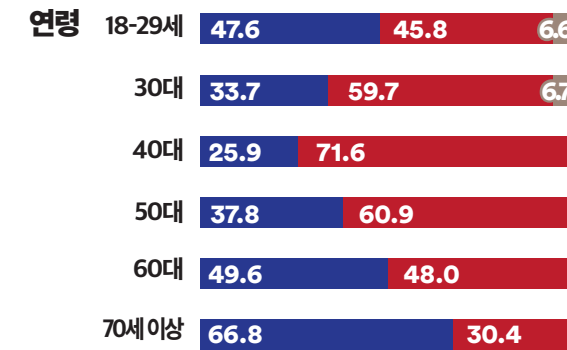
ARS



CATI



ARS와 CATI 모두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우세  
인천·경기와 광주·전라에서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우세  
70세 이상의 경우 두 조사 모두 '신뢰한다'는 응답이 우세



신뢰한다 신뢰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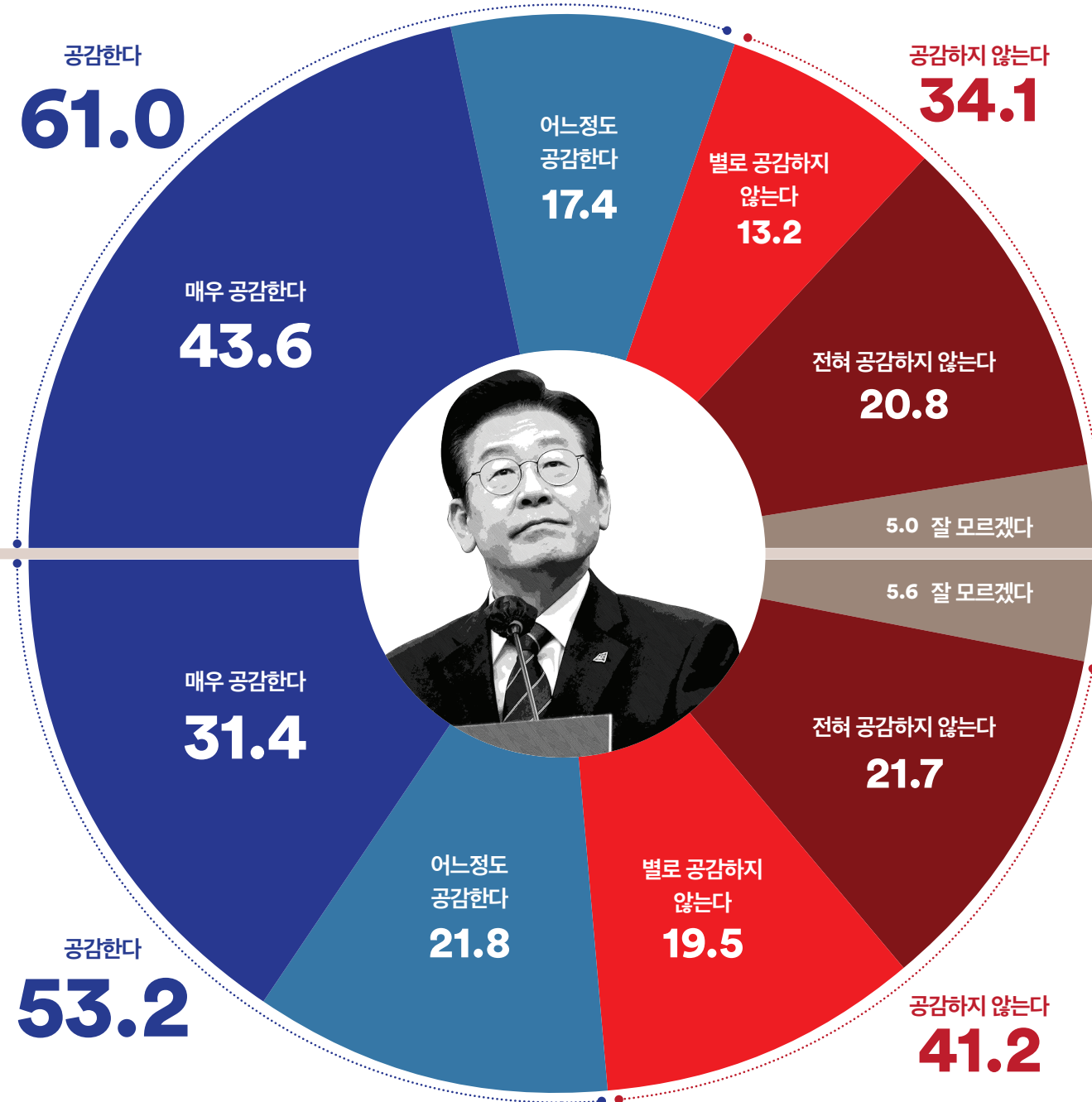
국정현안

전방위적 대장동 특검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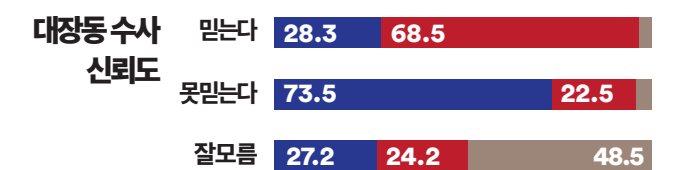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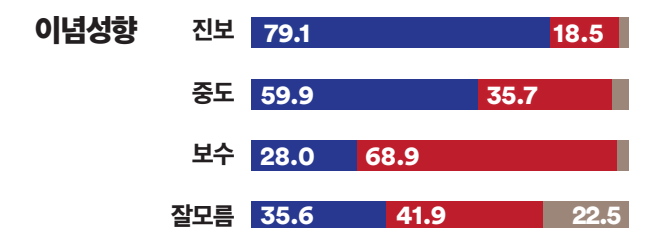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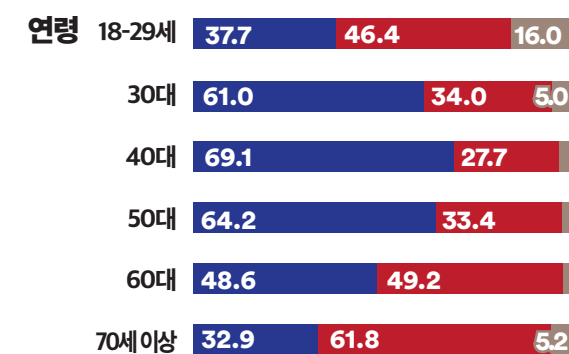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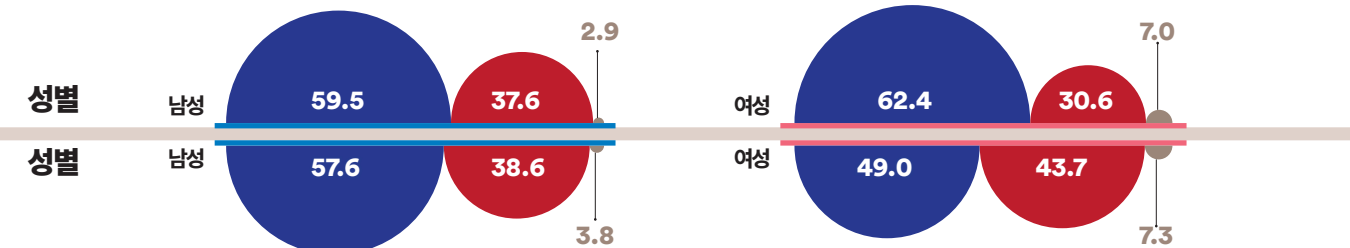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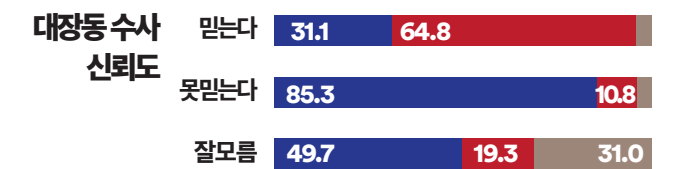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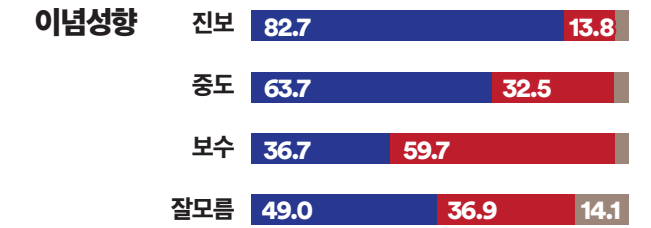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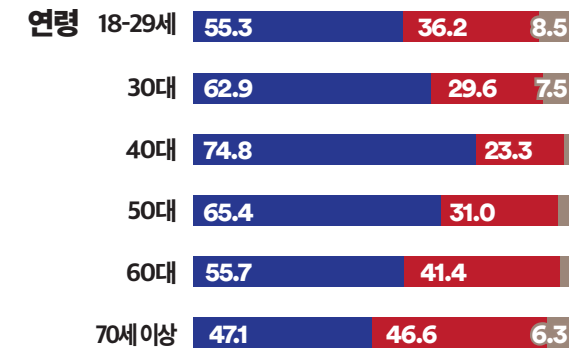
Q.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 본인을 포함해 의혹이 제기된 모든 사안에 대한 특검을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전방위적 대장동 특검 제안에 공감하십니까?

ARS

CATI



두 조사 모두 '공감한다'는 응답이 우세했으며, 공감, 비공감 격차는 ARS에서 CATI 대비 약 14%p 정도 더 큼  
두 조사간 가장 큰 차이를 보인 연령대는 70세 이상이었음



공감한다, 공감하지 않는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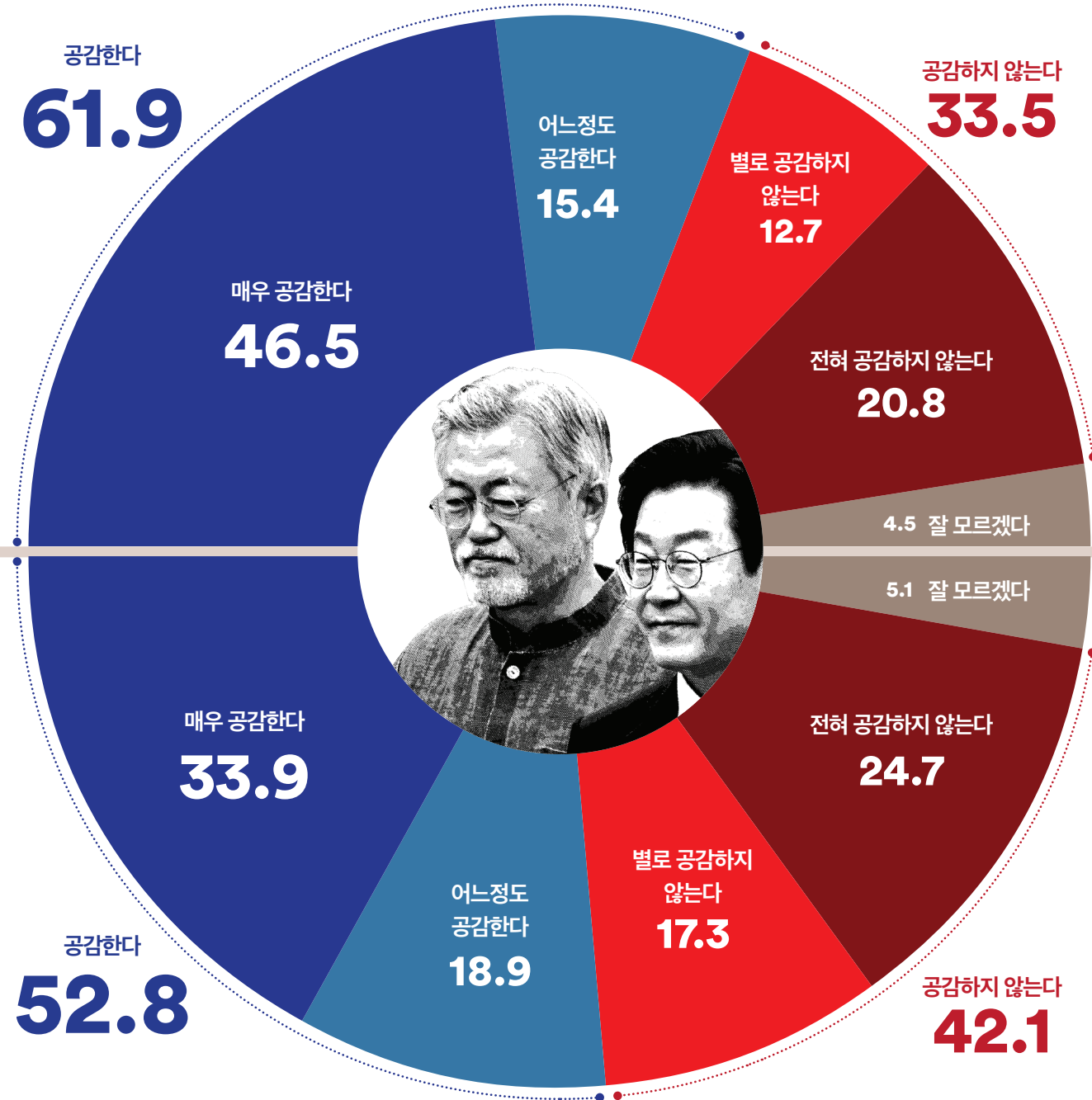
국정현안

검찰의 야권 표적 수사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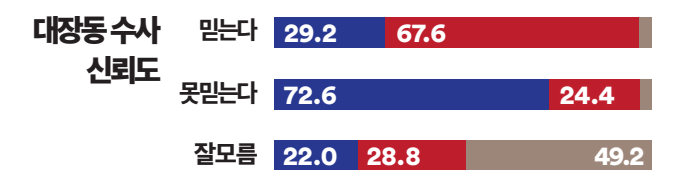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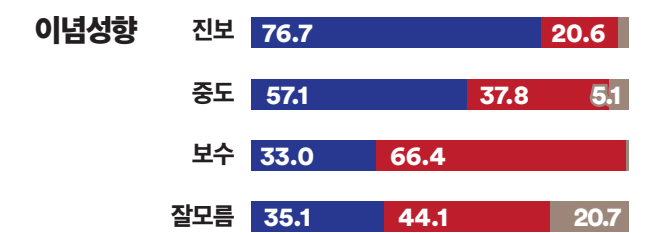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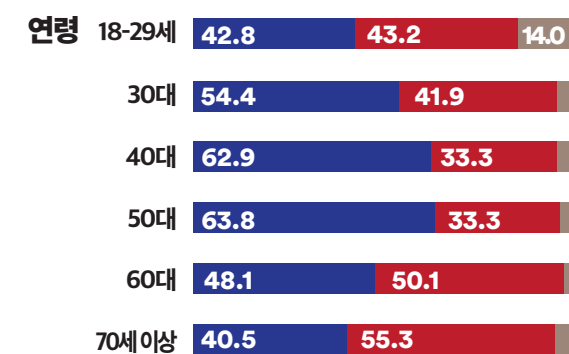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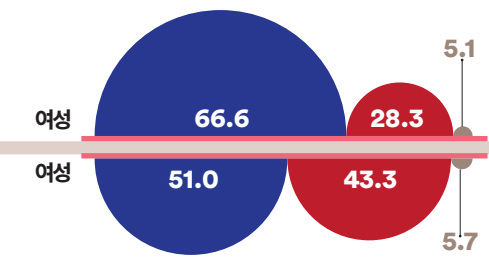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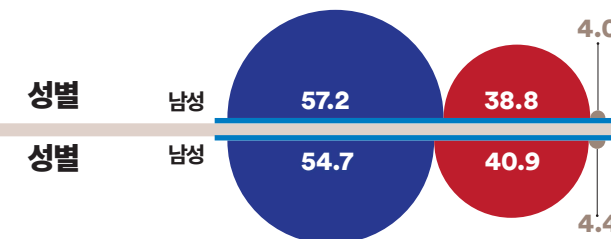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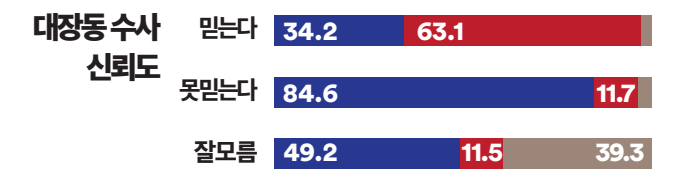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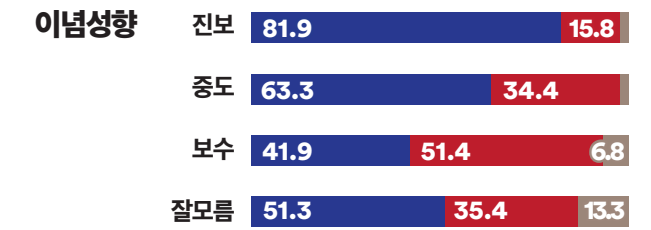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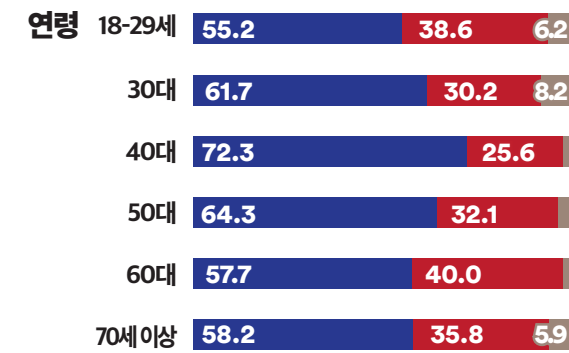
Q.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목표로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 공감하십니까?

ARS

CATI



두 조사 모두 '공감한다'는 응답이 우세했으며,  
공감, 비공감 격차는 ARS가 CATI대비 약 18% 더 큼  
서울과 대구·경북의 경우 ARS는 '공감' 비율이 우세, CATI는 '비공감' 비율이 소폭 더 높았음



공감한다, 공감하지 않는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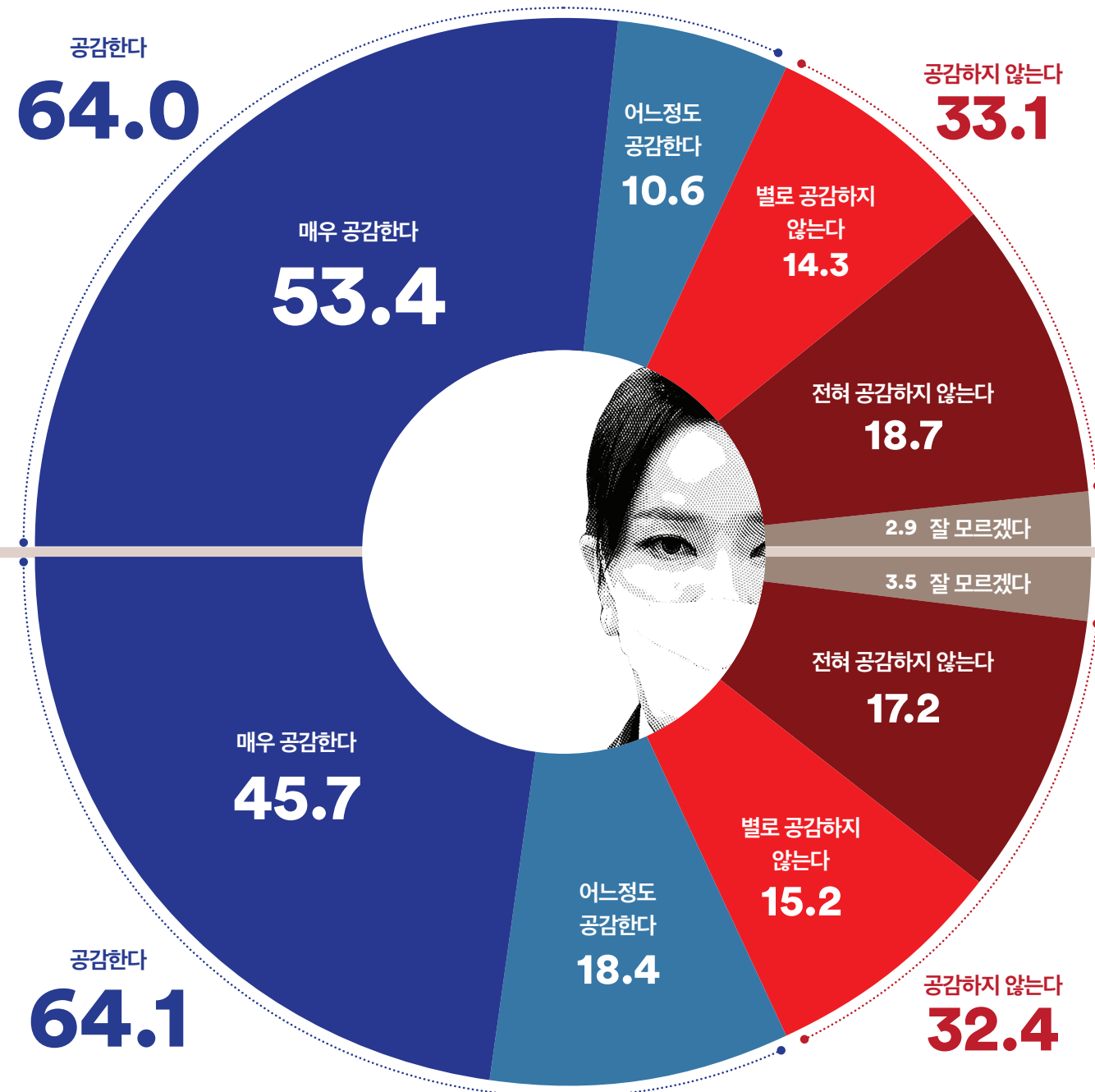
국정현안

김건희 특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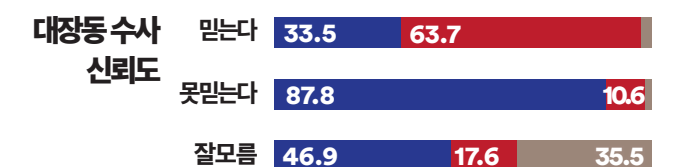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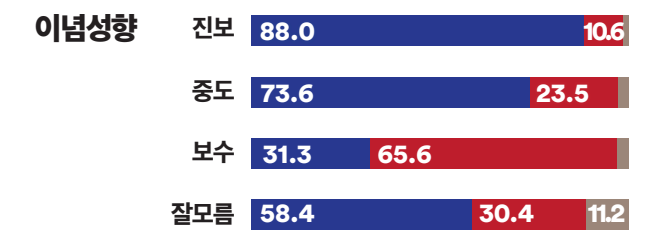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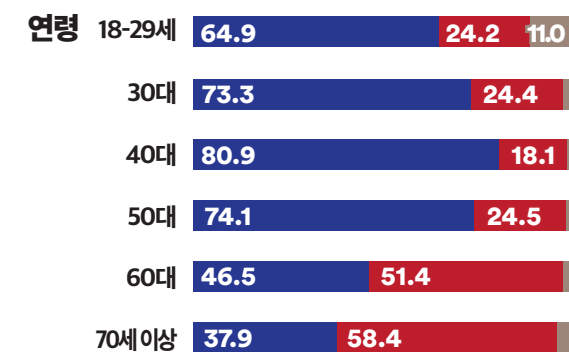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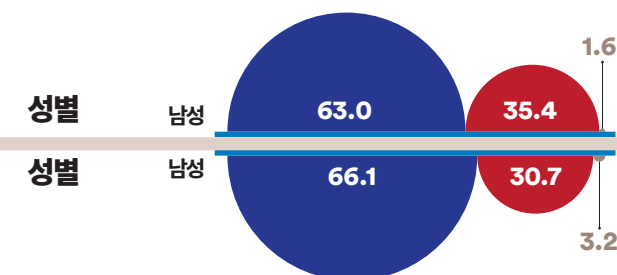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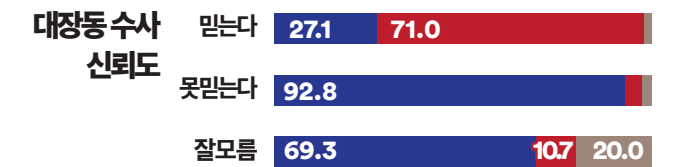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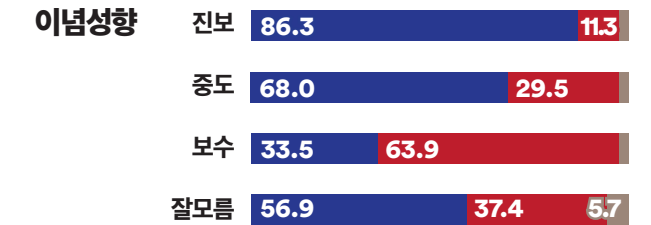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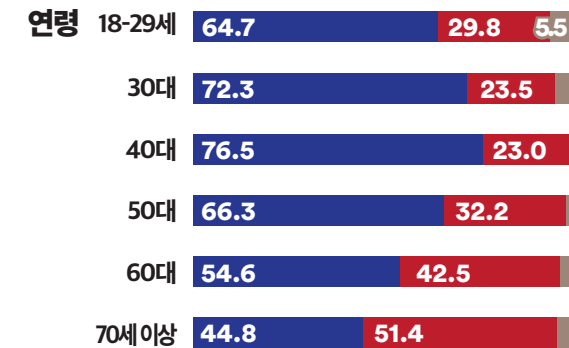
Q. 일각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특검 도입 주장에 공감하십니까?

ARS

CATI



두 조사 모두 10명 중 6명 이상이 '김건희 특검의 필요성'에 공감  
진보층·중도층에서는 '공감한다', 보수층에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우세  
중도층의 경우, '공감한다'는 응답 비율이 ARS보다 CATI에서 5%p정도 더 높음



공감한다, 공감하지 않는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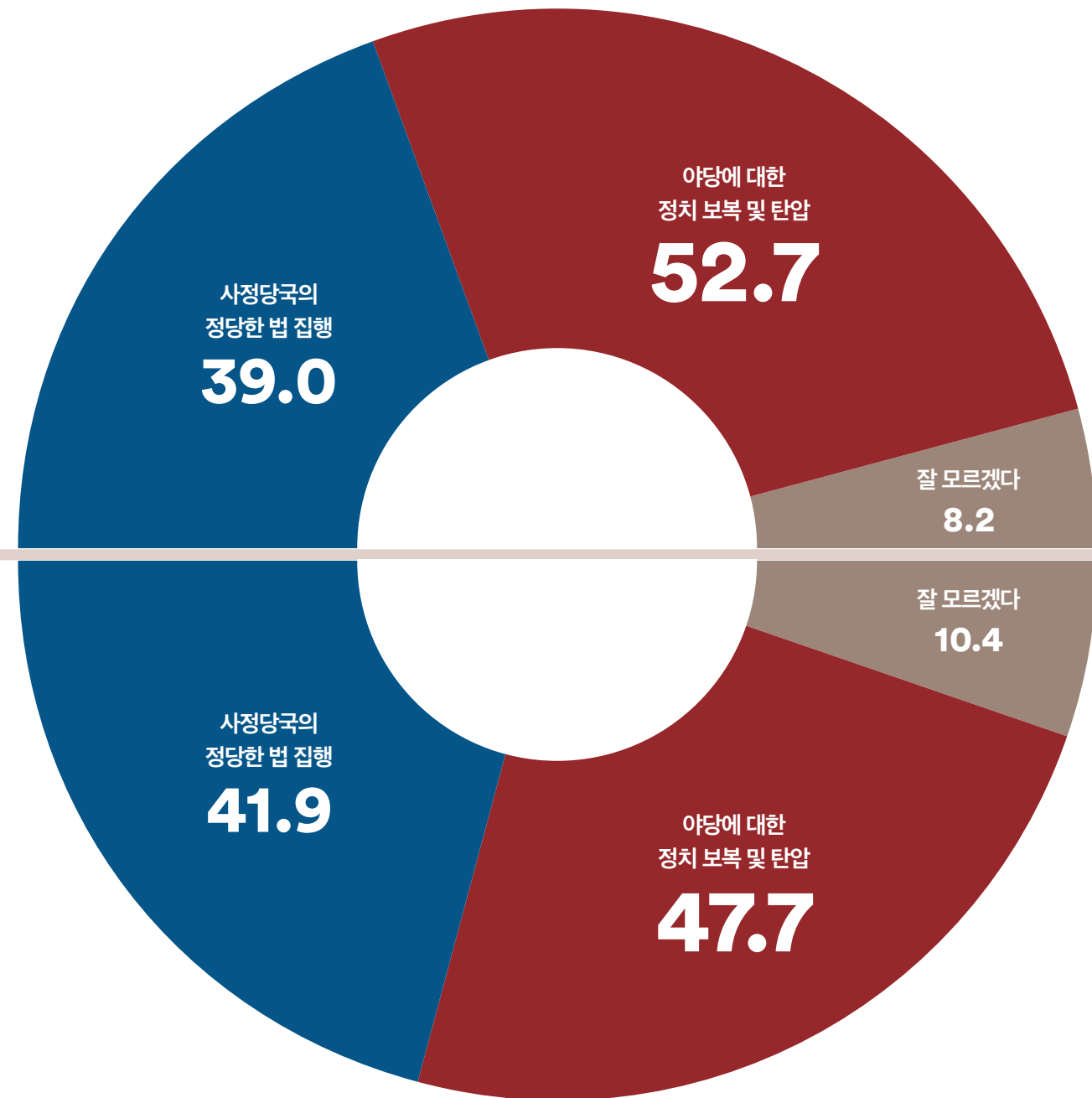
국정현안

더불어민주당 당사 압수수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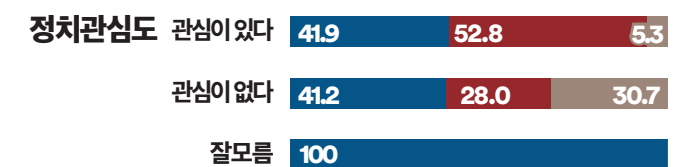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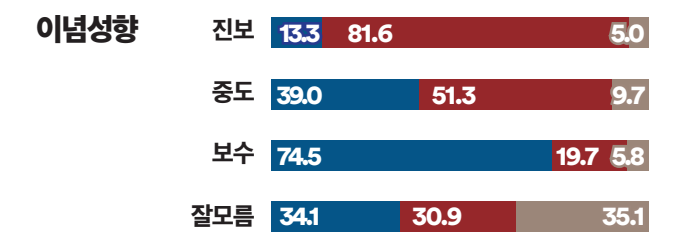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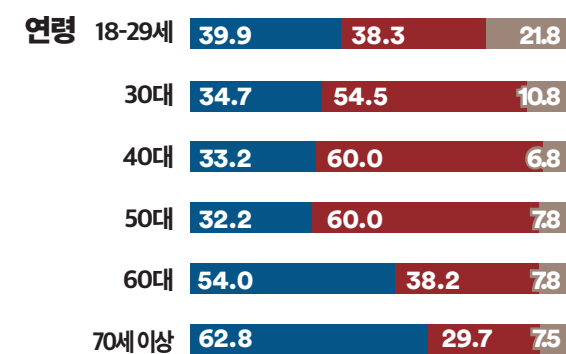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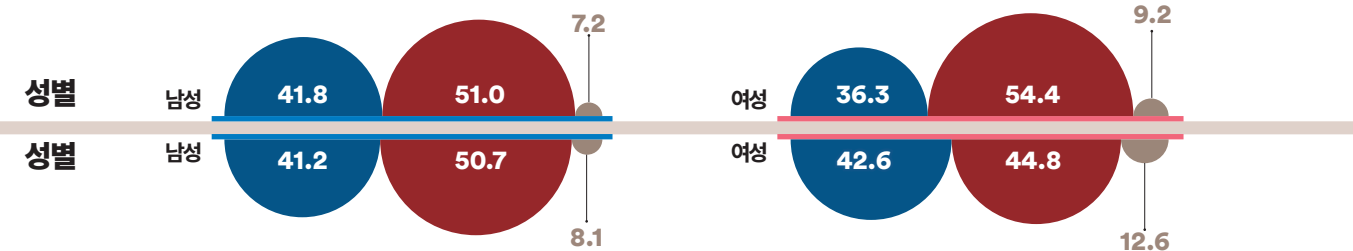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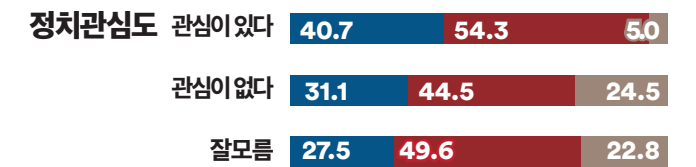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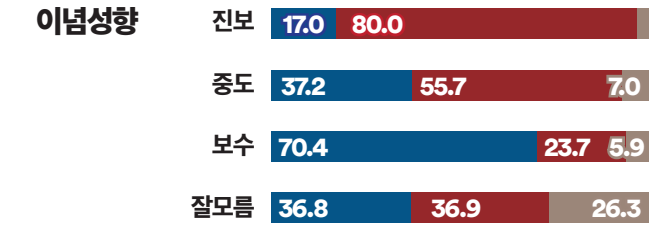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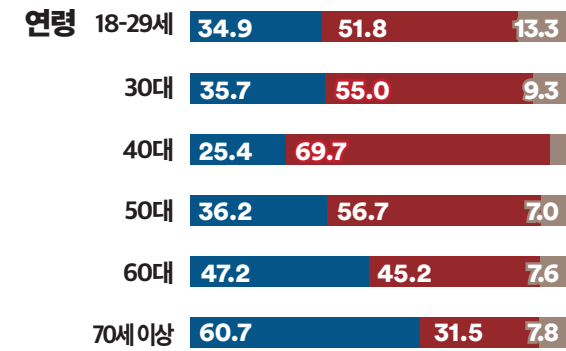
Q. 국감 기간 중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더불어민주당사 압수수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RS

CATI



ARS 조사에서는 '야당에 대한 정치 보복 및 탄압'이란 응답이 우세한 반면,  
CATI 조사에서는 '정당한 법 집행'이란 응답과 '정치 보복 및 탄압'이란 응답이 오차범위 내에서 같음  
진보층·중도층에서는 '정치보복 및 탄압', 보수층에서는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응답이 우세



정당한 법집행이다 정치보복/탄압이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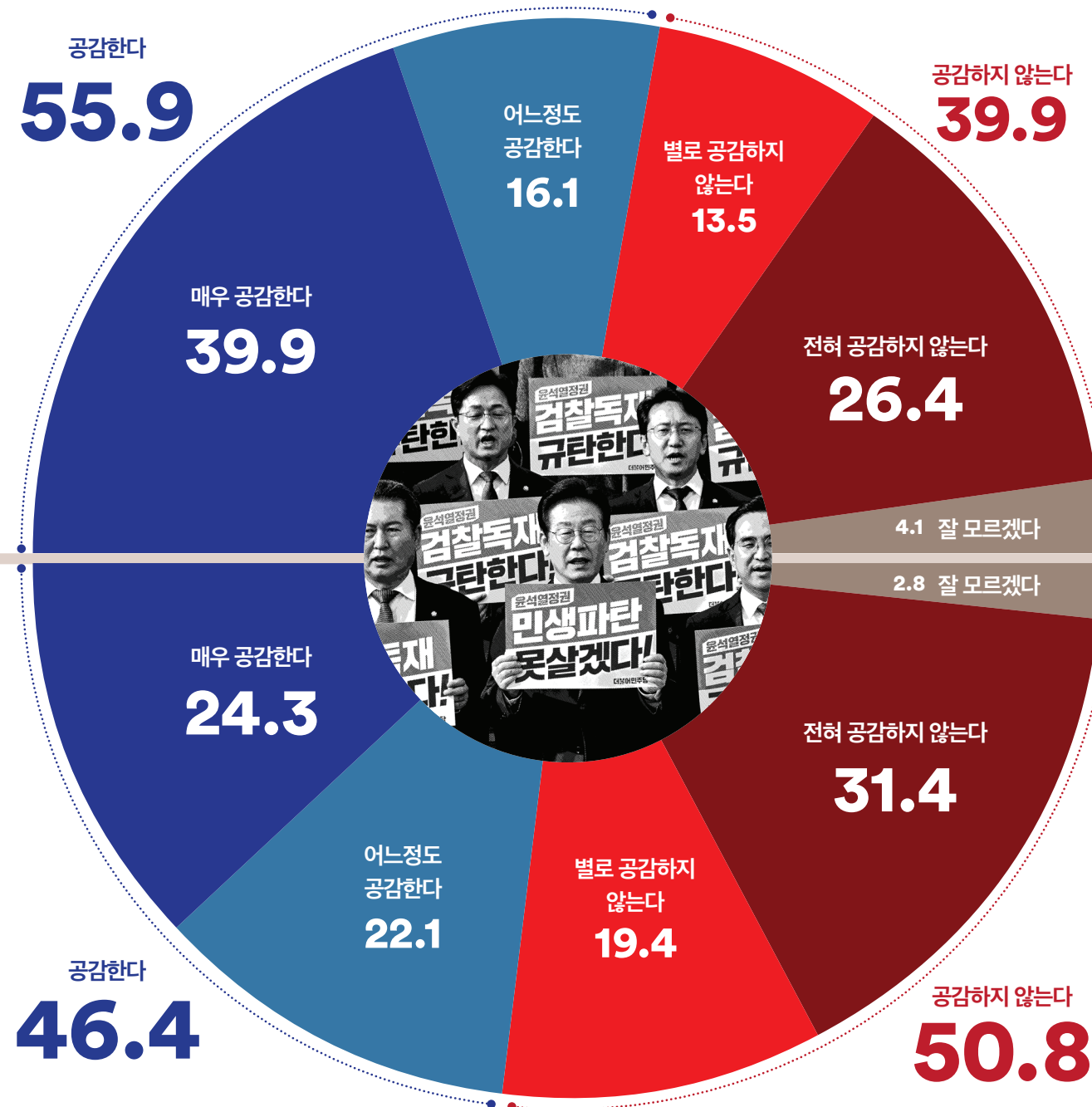
국정현안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시정연설 보이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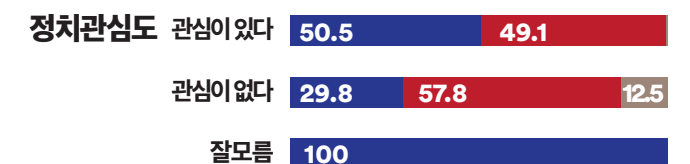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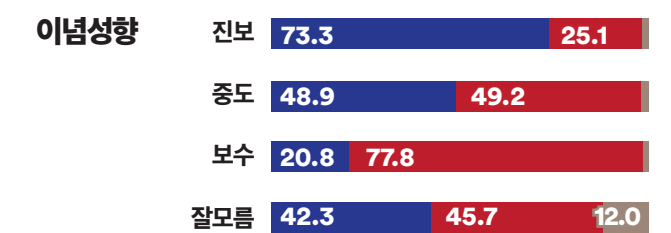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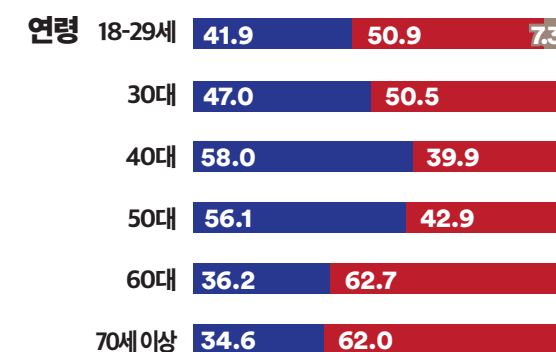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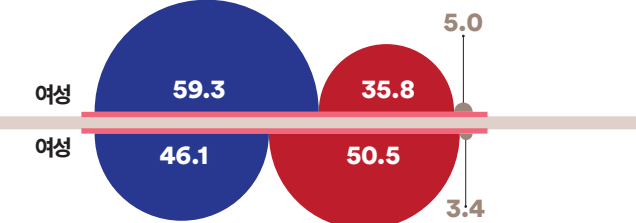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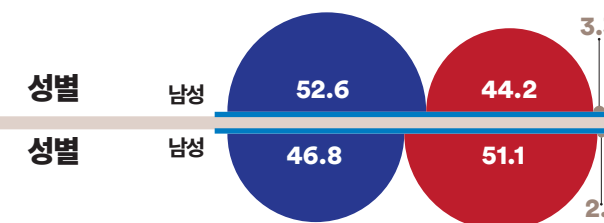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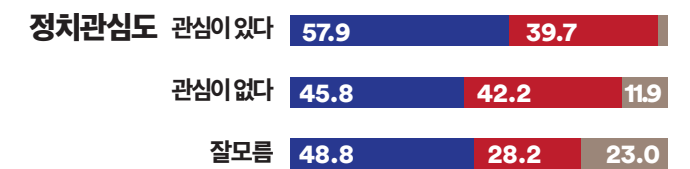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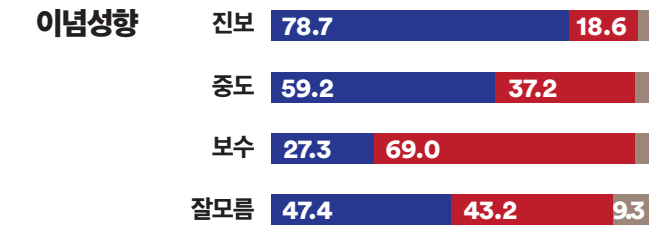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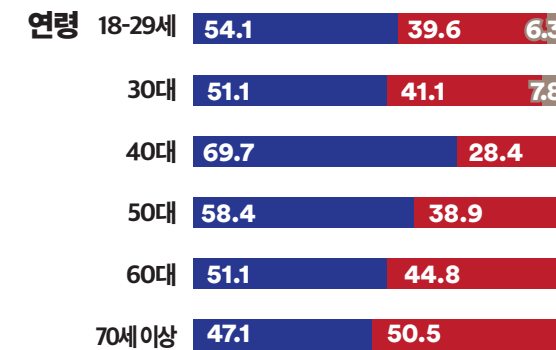
Q.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탄압 및 막말에 대한 사과가 없다며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규탄시위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단체 행동에 공감하십니까?

ARS

CATI



ARS 조사에서는 '공감한다'는 의견이 우세, CATI 조사에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약간 높음  
 ARS에서는 40대와 50대에서, CATI에서는 40대에서 '공감한다'는 응답이 우세  
 60대, 7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CATI에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 우세



공감한다    공감하지 않는다    모르겠다

# 여론조사 꽃 정례여론조사 CATI 보고서

**CATI 국정현안** 촛불 집회의 시점과 참여 의향  
부동산 가격 전망  
국내 경제 전망  
경제 악화에 대한 윤 정부 책임 정도

무선가상번호를 이용한 CATI 전화면접조사에서는  
촛불집회에 대한 의견과 경제현안에 대해 추가로 질문했습니다.  
촛불집회의 시점과 참여 의향, 현재 부동산과 경제에 대한 의견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악화 상황에 대해  
정부의 책임이 큰지 묻고 응답결과를 정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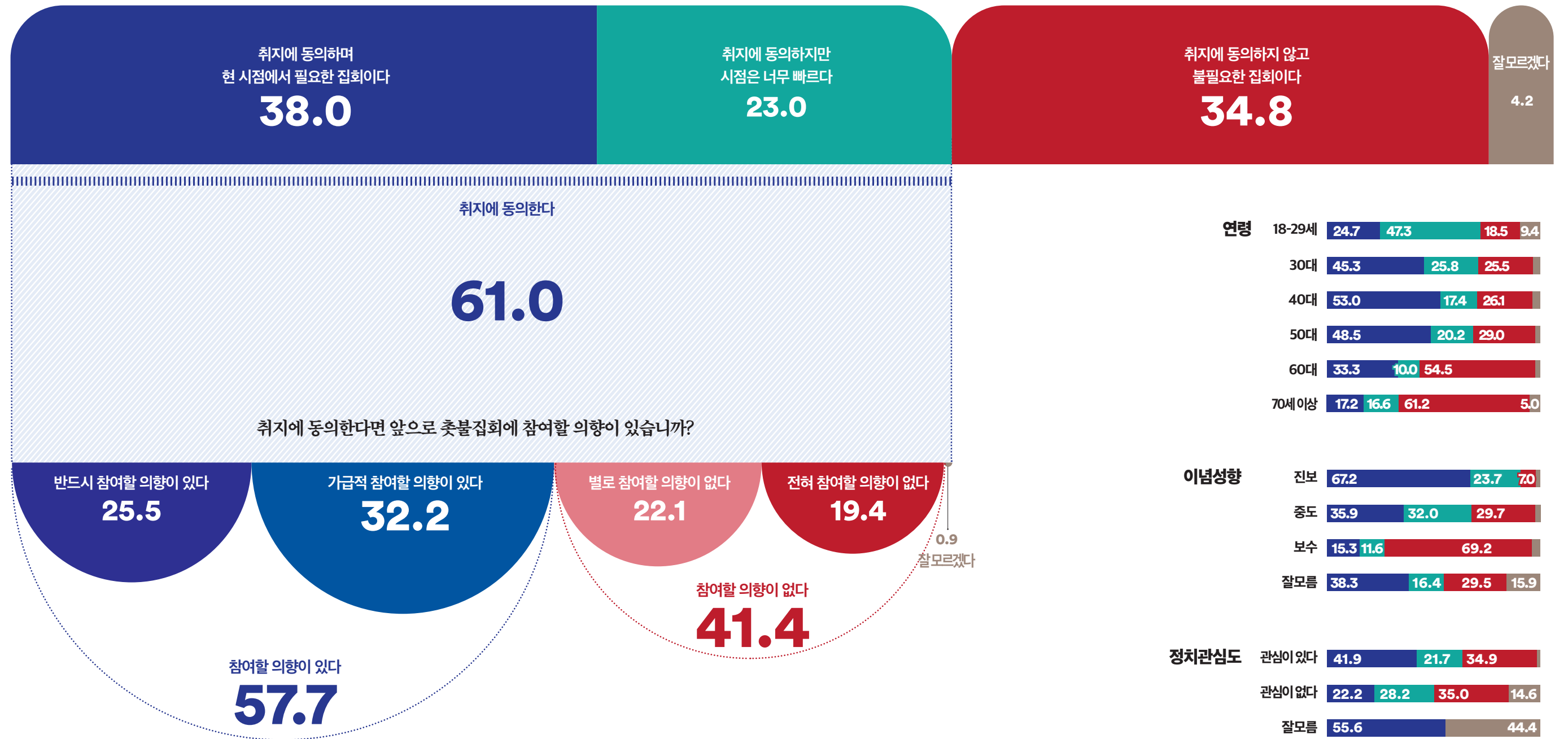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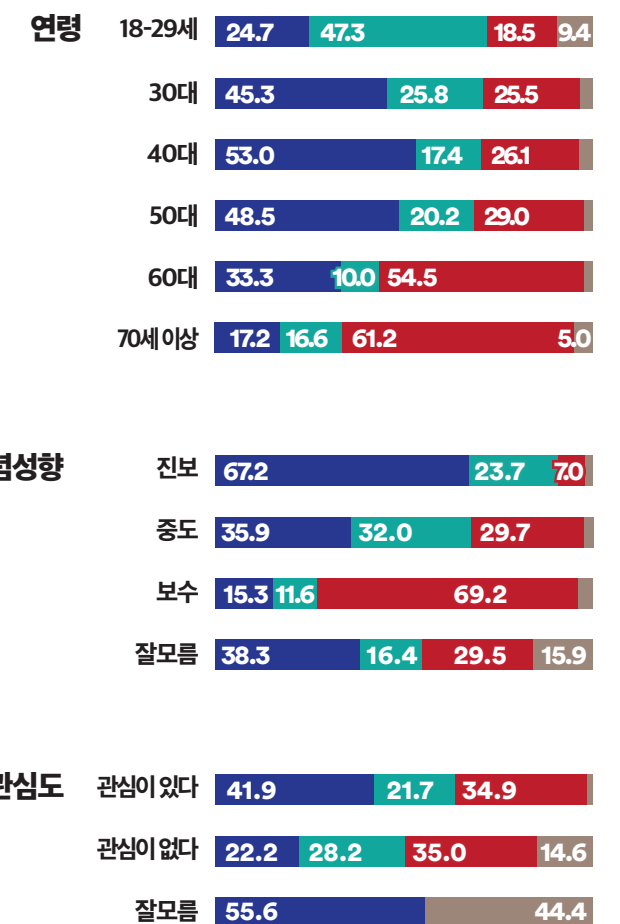
## 국정현안

### 촛불집회의 시점과 참여의향

Q. 지난 22일 서울에서 윤 대통령의 퇴진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촛불 집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촛불 집회에 참여 의향이 높은 연령대는 60대(79.0%), 40대(73.3%), 50대(71.9%) 순  
 촛불 집회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현시점 필요여부에 따라서는 응답이 갈림  
 ‘취지 동의·현시점에 필요한 집회’: 참여 78.9% vs. 불참 20.1% | ‘취지 동의·이른 집회’: 참여 22.5% vs. 불참 7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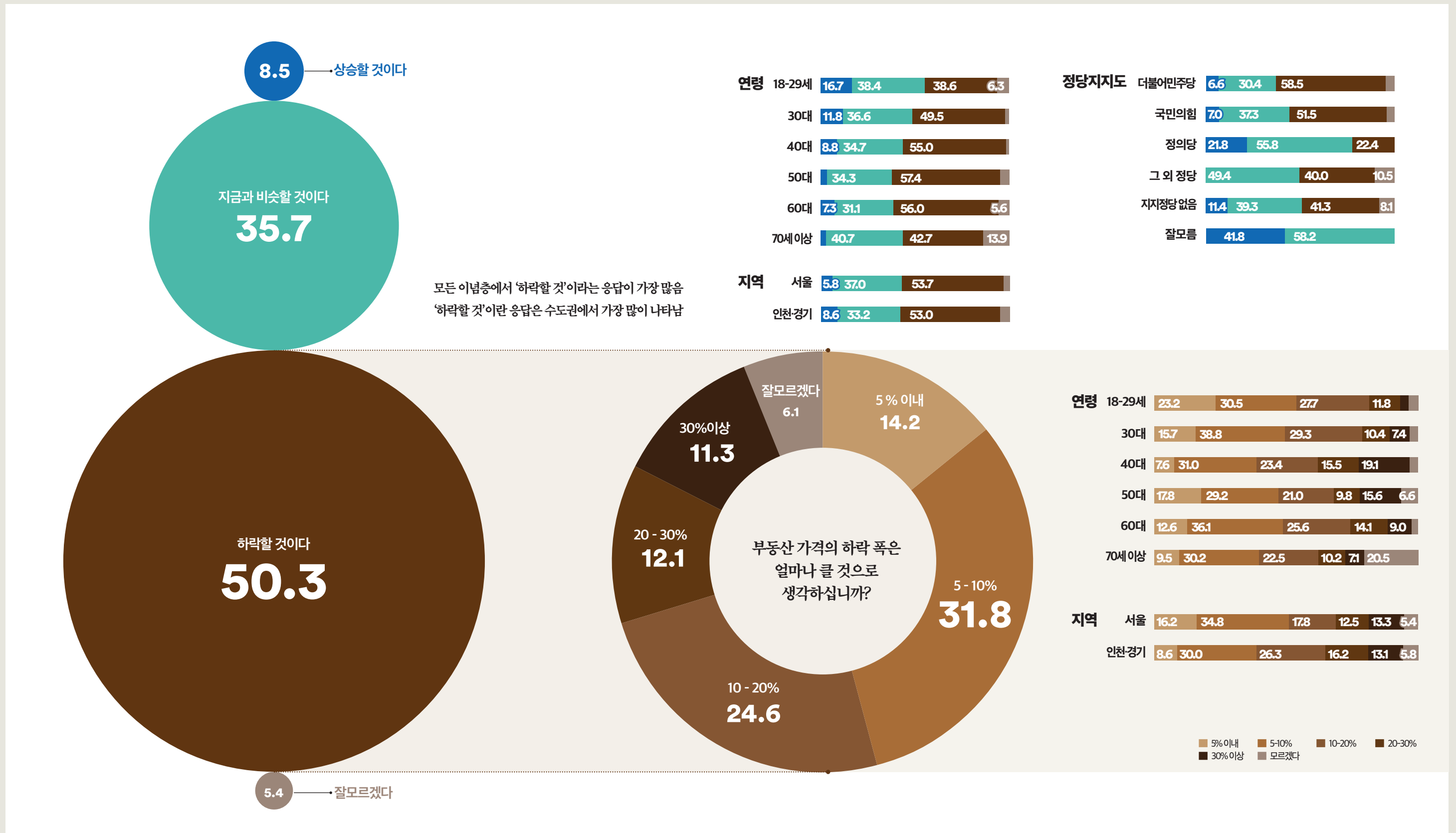
■ 취지에 동의하고  
시점도 적절하다 ■ 취지에 동의하나  
시점은 너무 빠르다 ■ 취지에 동의하지 않고  
불필요한 집회다 ■ 모르겠다



## 국정현안

### 부동산 가격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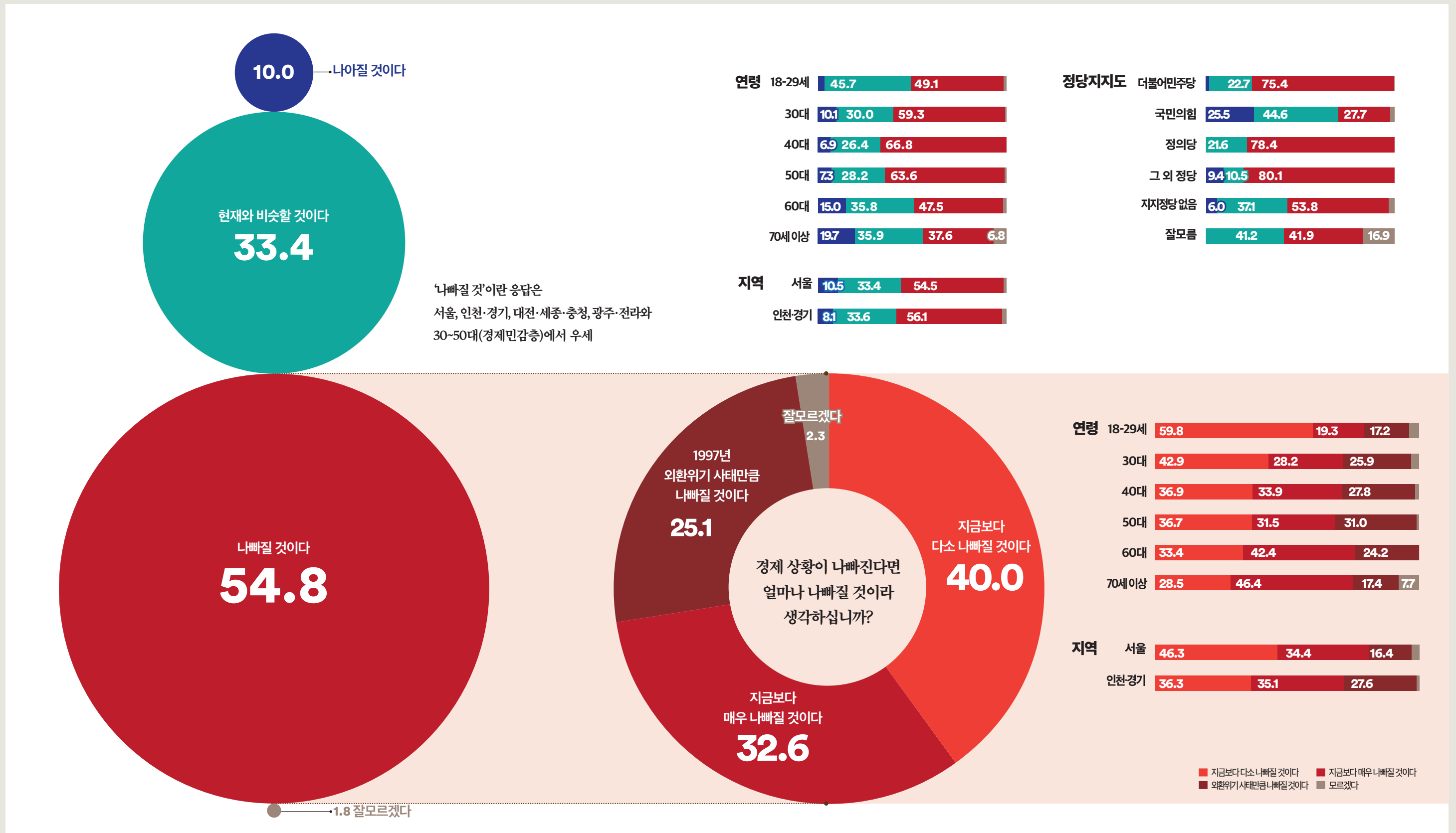
Q. 현재와 비교했을 때, 6개월 후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어떠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국정현안

### 국내 경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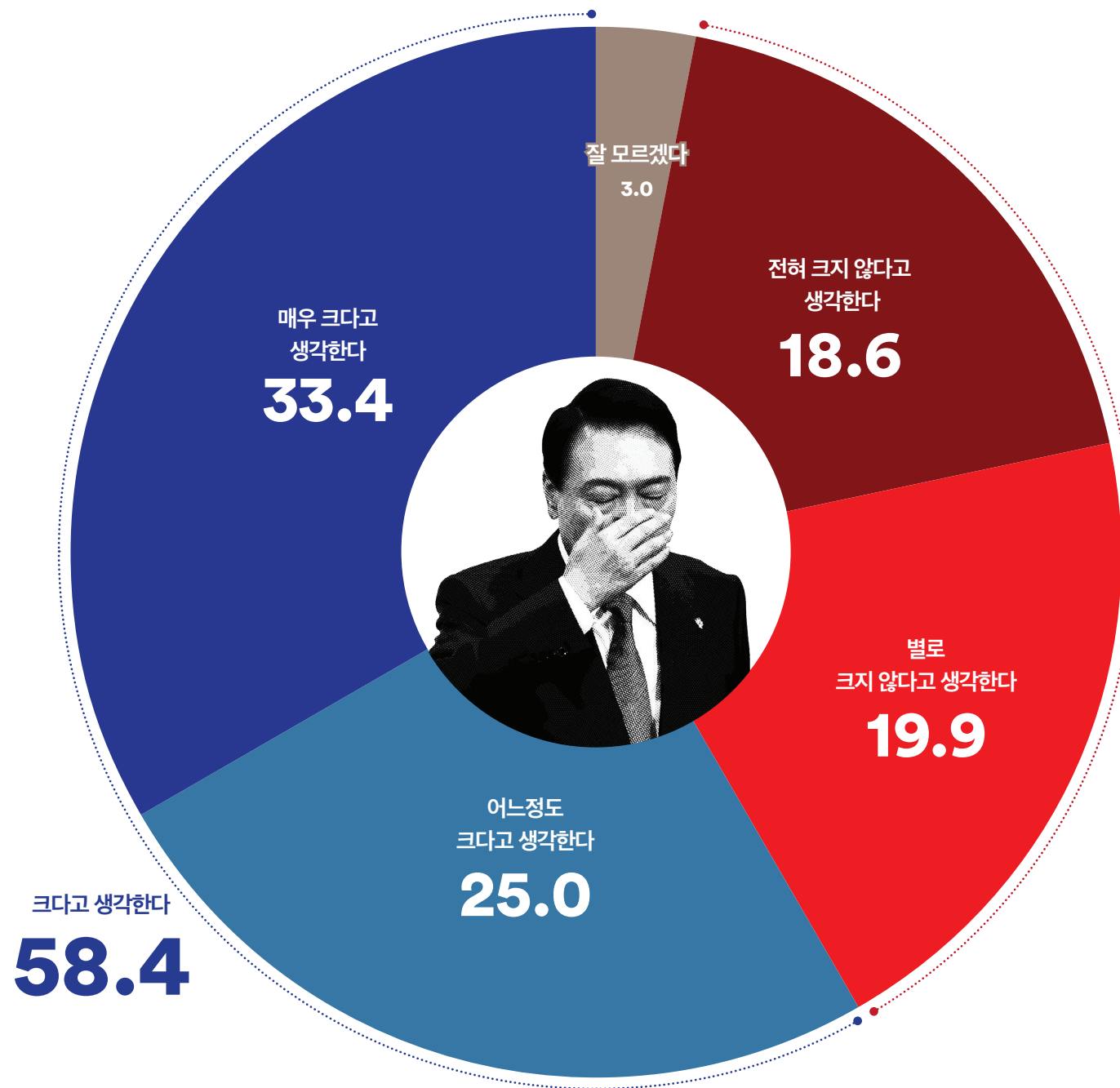
Q. 현재와 비교했을 때,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다음 중 어떠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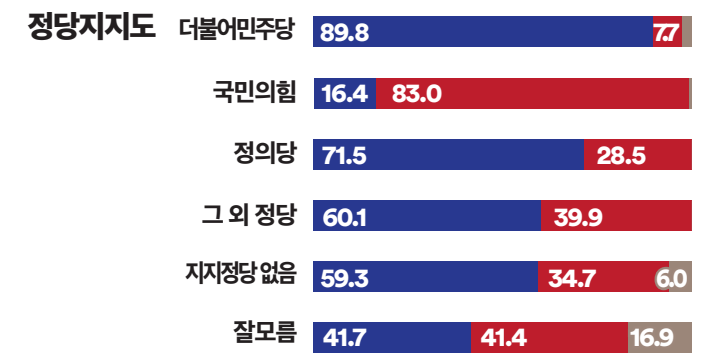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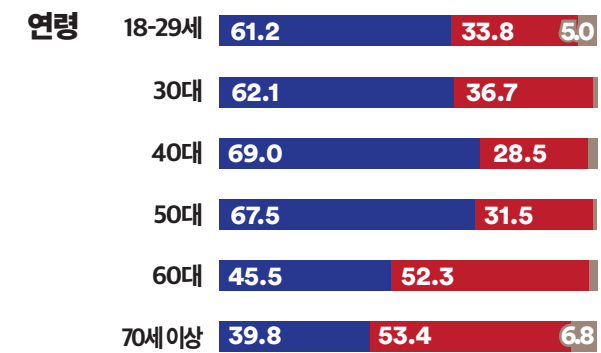
## 국정현안

### 경제 악화에 대한 윤 정부 책임정도

Q. 우리 경제가 현재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경제 악화에 대해, 윤 대통령 및 현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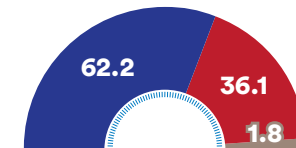


10명 중 6명 정도는 '경제 악화에 대해 윤 정부 책임이 크다'고 응답  
진보층·중도층의 경우, '그렇다'는 응답이 우세, 보수층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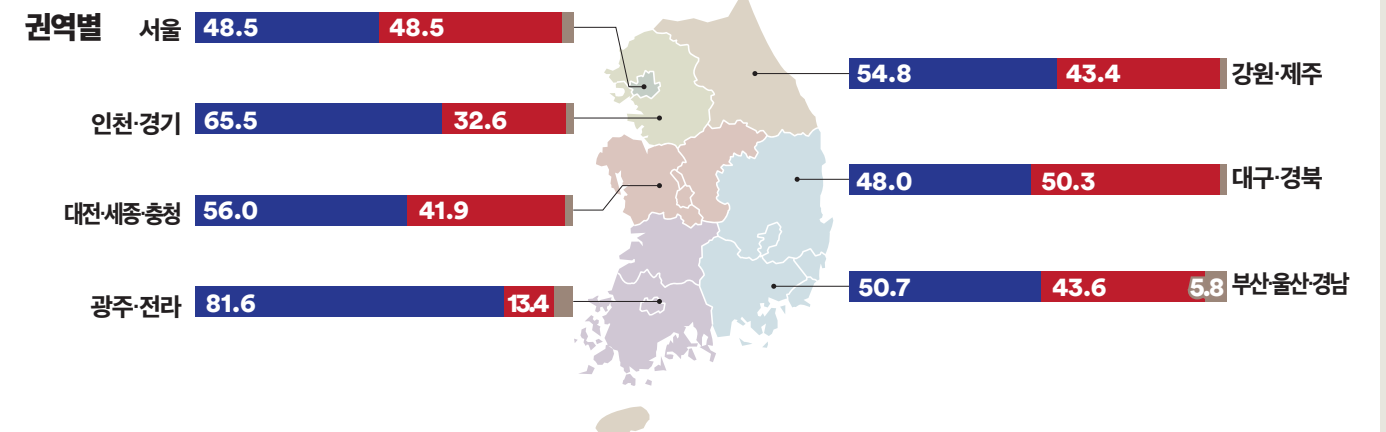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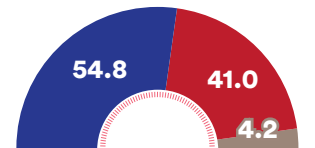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38.6**

성별 남성



여성



■ 책임이 크다 ■ 책임이 크지 않다 ■ 모르겠다

# 제13차 정례여론조사 ARS+CATI 보고서

[www.flowerresearch.com](http://www.flowerresearch.com)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